2024년 여름호 vol.175

이화동창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2024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원귀정 · 박혜영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총동창회의 새 기념품이 나왔습니다

1



타월 세트

타월(60수 코마사)과 핸드 타월이 각 1개씩 들어 있습니다.
타월 세트는 포장이 기본 옵션이며, 포장지의 색상은
그린과 흰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포장지 색상 선택을 위하여
유선으로 각 재고를 먼저 확인 후 주문해 주세요)

– 가격 : 18,000원
– 색상 : 흰색(포장 옵션 : 그린, 흰색)
– 크기 : 타월 80cm × 38cm /
핸드타월 32cm × 35cm(고리 5cm)



2

엽서북(19종 세트, 황규호 명예교수 사진 작품)

– 가격 : 30,000원
– 크기 : 가로 180mm × 세로 127mm



3

카드(황규호 명예교수 사진 작품)
(꽃 5종 세트/건물 5종 세트)

각 세트 별로 5개의 카드와 5개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 안에는 흰색 속지가 붙어 있습니다)

– 가격 : 시리즈별(5종 세트) 각 20,000원
– 크기 : 가로 175mm × 세로 124mm



4

문진(황규호 명예교수 사진 작품)

대강당, 본관, 배꽃 세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 가격 : 각 20,000원(낱개 판매)
– 크기 : 문진 바닥 지름 65mm × 높이 30mm(가장 높은 곳)



5

에코백(소)/에코백(대)

양면 각각 디자인이 다르고, 자석 똑딱이와 안주머니가 있습니다.
(안주머니 사이즈–가로 15cm × 세로 13cm)

– 가격 : 에코백(소) 30,000원 / 에코백(대) 40,000원
– 크기 : 에코백(소) 윗부분 가로 33cm × 세로 25cm
(손잡이 포함 42cm) × 아랫부분 가로 27cm × 폭 10cm
에코백(대) 윗부분 가로 42cm × 세로 33cm
(손잡이 포함 60cm) × 아랫부분 가로 34cm × 폭 10cm



6

통영 누비 슬리퍼

부직포 주머니에 담아 드립니다.

– 로고 없는 하늘색 슬리퍼 : 30,000원, 사이즈 280mm 내외
– 배꽃자수 있는 슬리퍼 : 40,000원, 사이즈 260mm 내외
– 하늘색 슬리퍼 1+배꽃자수 슬리퍼 1 세트 : 60,000원
(정가에서 10,000원 할인 특별가)

* 제품별 상세 사이즈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www.ewhaalum.or.kr)를 참고해 주세요.

■ **판매 장소** :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사무국(02–3277–3386, 3387)
■ **판매 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00(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품목당 100개 이상 구입 시 10% 할인(수첩, 달력은 제외)됩니다.
* 택배 주문(02–3277–3386, 3387 또는 ewhaalum@ewha.ac.kr)도 가능합니다. 단, 택배 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2024년 여름호 vol.175

이화 동창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진선미관 앞 낙우송(2023)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03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서로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되기를

10 **2024 영원한 이화인**
송동수 동창 등 18인

12 **2024 올해의 이화인**
피현정 동창 등 45인

15 **총동창회 주최, 황규호 명예교수 사진전**
이화의 사계를 따뜻한 시선에 담다

17 **이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화인의 노력**
김준혁 의원의 과거 망언에 대한
이화여대 총동창회의 대응

20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예수 안의 영생으로 거듭난 이화
합심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다

2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잇대고 이어나가는
동창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2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일대일 아동 결연 통해 캄보디아 빈민에게 도움을 주소서

28 **빛나는 이화인 / '최초'의 수식어와 함께 산 원귀정 동창**
열정과 끈기로 달려온 오뚝이 인생

31 **빛나는 이화인 /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사장 박혜영 동창**
의료 수출과 봉사의 실천 통해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다

35 **총동창회 소식**
2024 '영원한 이화인'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외

39 **모교 소식**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외

42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46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57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64 **동창 근황** 김임순 동창 외

72 **동창이 펴낸 새 책** 『숨 쉬는 옹기, 그 멋에 끌리다』 외



03


10


12


15


17


20


28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
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4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9)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아름다운 '이화의 계절' 에
138년 전 이 땅 여성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화를 시작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화가 이화 되도록 때마다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기도의 씨앗들을 심게 하심으로
오늘까지 이화 안에 구원의 역사를 든든히 잇대어 주신 은총을 새삼 감사하면서,
이화 동창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 동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화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자고하고 거짓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화로서 지극히 선한 일을 구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삶 힘써 구현하여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이화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겨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나눔으로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허물없이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도록 이화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끝없이 참아내고,
쉼 없이 수고하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걸음을 소망으로 띠 띠워 주시옵소서….
이화 동창 선교사들로 하여금
당연하다고 여겼던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였으며,
내 삶과 사역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곳곳에 영글어 갈 또 하나의 이화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화' 의 한숨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소원 가장 좋은 것으로 세밀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서로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되기를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31일(금)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빛나는 이화인'상 시상 및 '영원한 이화인' · '올해의 이화인' 추대와 합창제 등 3부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모교 총장, 김혜숙 전 총장,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 등 내빈과 졸업 50주년(1974년 졸업)과 30주년(1994년 졸업) 재상봉 동창 및 북미주 지회연합회, 일본 지회, 대구 지회, 대전 지회 등 국내외 각지에서 모교를 찾은 동창과 이화가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강당 계단을 오르자마자 보이는 광장 왼쪽에는 행사 시작 전인 오전 10시부터, 왜곡된 편견과 억측으로 이화의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는 김준혁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이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화인들의 서명' 부스가 차려졌고, 대강당 오른쪽에는 총동창회 기념품 판매 부스가 마련되어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기념품도 구매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1부 기념식 사회를 맡은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의 개회선언과 곧바로 이어진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의 입장으로 기념식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당당하고 씩씩한 행진곡풍의 배경음악에 맞춰 한 사람씩 단상 위에 오를 때마다 가족과 동기 동창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후 정자영(성악 93) 동창의 선창에 맞춰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찬양한 뒤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이 나와 "138년 동안 이화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고로 준비한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외 하객들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김은미 모교 총장(사진 왼쪽부터)

에게는 은혜를,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민족에 헌신했던 이화의 정체성 잊지 말길

다음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같이 기쁜 날에는 특히 138년 전에 이 땅 여성들의 작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교 이화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한 작은 소녀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속 이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낌없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기도로 몸소 이화 사랑을 실천하셨던 스승님들과 선배님들, 그 정신을 이어온 후배들의 어우러짐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화의 역사가 한 개인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는 통탄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거론하며 "어렵고 암울했던 질곡의 시대에 우리 이화는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민족 앞에 헌신했고,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살피고 돌보면서 지금까지 이화의 정체성을 면면히 이어온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38세 된 모교 이화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이화인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로에게 그 빛을 나누는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맺었다.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원귀정·박혜영 동창(사진 왼쪽부터)



다음 순서로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이 이어졌다. 올해 제9회 '빛나는 이화인' 상은 현재 베트남 휴텍대학교 베트남-한국기술교육원 부원장이자 한국어교육 전임강사로 한국어의 우수성과 한국의 선진적 경영 역량을 동남아에 전파하고 있는 원귀정(영문 89) 동창과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사장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취약 계층의 의료 돌봄에 앞장서고 있는 박혜영(의학 89) 동창이 선정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열쇠와 감사패를 증정했다.

선배들을 본받아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

이어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18명의 '영원한 이화인'을 대표해 김귀주(동양 74) 동창에게, 45명의 '올해의 이화인'을 대표해 조상미(사복 94) 동창에게 각각 기념패를 수여했다. 또한 졸업 50주년(1974년 졸업)과 졸업 30주년(1994년 졸업)을 맞은 재상봉 동창을 대표해 이순정(교공 74) 동창과 윤귀염(경영 94) 동창에게 총동창회가 마련

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표하여 연단에 오른 이순정 동창은 "앞으로도 이화인이라는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교를 격려하며 영원한 이화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졸업 30주년 동창 대표로 나선 윤귀염 동창은 "이 자리에 함께한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동창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선배님들이 그래 오셨듯 졸업 30주년 동창들도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모교의 힘찬 도약

이어 김은미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하는 순서를 가졌다. 김 총장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최우수 석학교수 및 연구진을 영입하고, 대학원 경쟁력을 높여 대학원 충원율을 94.6%까지 늘려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여성 AI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첨단 분야 전공을 설계하고 2023년에는 여자대학 최초로 인공지능대학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수도권에서 단 4개 대학만이 선정된 가운데 첨단 분야에서 30명 정원을 순증했으며 서울시에서 정원을 증원(순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은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덧붙이자, 동창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서울시 서북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서대문 지역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캠퍼스타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순정(왼쪽) · 윤귀염 동창이 각각 졸업 50주년과 졸업 30주년 재상봉 동창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영원한 이화인' 18명과 '빛나는 이화인' 45명을 대표해 김귀주(왼쪽)·조상미 동창이 기념패를 받았다

한편, 150주년을 향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한국 최초로 여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한 선교사 룰루 프라이의 편지와 일기를 엮은 『정동의 봄: 룰루 프라이의 편지 1893~1921』을 펴냈다"고 알렸다. 이 책을 통해 이화에는 1910년에 이미 '대학과'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영문판 발간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향한 사업으로는 헬렌관과 생활환경관을 신축하는 미래캠퍼스 사업을 소개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뉴미디어 기반의 첨단 미디어 도서관(현 헬렌관)과 ECC 3배 규모로 4개 단과대가 들어가는 산학창업 중심의 미래형 건축물(현 생활환경관)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1부와 2부 막간에 신학대학원 합창단(단장: 최영신(신대원 12), 지휘: 최영신, 반주: 여진아(신대원 13)) '이음콰이어'가 무대에 등장해 〈예수 나의 주〉를 합창하는 찬조 공연을 펼쳤다.





동창의 날 행사를 축하하며 신학대학원, 음악대학 이음회, 이울의 아르모니아 합창단이 각각 축하공연을 펼쳤고(사진 윗줄 왼쪽부터), 정자영 동창은 교가를 선창했다(사진 아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눈 동창들

곧이어 2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강승애(체육 95) 총동창회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며 소개할 때마다 과 동창들과 가족들은 단상 위로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대강당이 떠나갈 듯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의 순간을 축하해줬다. 올해 추대식에는 '올해의 이화인' 중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44명과 '영원한 이화인' 18명 전원이 참석하여 높은 참석률을 나타냈다.

미국 LA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거의 50년 만에 모교 교정을 밟은 '영원한 이화인' 금봉숙(의학 74) 동창은 "대강당과 몇몇 건물만 빼고 거의 다 바뀐 것 같다. 모교의 발전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에 가서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의사로서 보람된 삶을 누렸고, 현재 은퇴한 지 1년째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복과 꽃다발 부케 대신 이화그린색 학위수여복과 각자의 명패가 달린 곰돌이 마스코트로 바꾼 첫해였던 만큼 예식 복장 변화에 대한 동창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만나본 동창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버지니아에서 1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한 '올해의 이화인' 이아람(관현 94) 동창은 "소장할 수 있어 한복을 지지했는데 막상 모교 학위수여복을 직접 입어보니 너무 예뻐서 다수결을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명패가 달린 곰돌이 마스코트는 집에 가져가서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자랑할 만큼 소장가치가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올해의 이화인' 기 대표로 선출된 조상미(사복 94) 동창은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현재 휴직 중)이자 한 조직의 기관장이라는 마당발답게 '교수님의 올해의 이화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까지 직접 제작해 온 제자들, 그리고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온 직장 동료들에 둘러싸여 영광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조 동창은 "새로 구성된 8명 임원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잘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올해의 이화인' 구미경(동양 94) 동창은 연년생인 언니 구은경(불문 93) 동창이 작년 '올해의 이화인' 출신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축하의 발걸음을 한 어머니 역시 모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세 모녀가 오늘 또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어머니 이길자(기독 65) 동창의 소감과 "앞으로 계속 이화의 발전에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두 자매 동창의 발언에서 진심 어린 애교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의 이화인' 이상희(수학 94) 동창의 가족은 시어머니 이증훈(가정 64) 동창, 손아래 동서 정지영(경

영 96) 동창, 조카 홍연주(소비자 23학번) 재학생까지 3대가 이화인이다. 이증훈 동창은 "손녀까지 3대에 걸쳐 이화와 연을 맺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장으로 '올해의 이화인'에 선정된 윤하나(의학 94) 동창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모교 화학과를 졸업한 어머니(양영자 동창, 화학 65)도 제가 이대에 입학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게 되어 더 좋아하셨다"라고 귀띔했다.

이번 졸업 30주년 재상봉을 계기로 처음으로 동기 카톡 모임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이사인 '올해의 이화인' 이영희(법대·법전원 94) 동창은 "현재 과 동기 110명 중에 44명 정도 모였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동기들을 찾아 점차 인원을 늘려가려고 한다"며 "오늘도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친구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며 회포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소개 순서가 끝난 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를 축하하기 위해 음악대학 합창단(지휘: 황선미(피아노 93), 반주: 곽예림(피아노 12)) '이음회'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음회 동창들은 첫 곡 〈The Nightingale〉를 무반주 아카펠라로 노래하며 천상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으며, 두 번째 곡 〈Gloria (Mass No.6)〉도 수준급 실력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출해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마지막 순서로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황규호 교육학과 명예교수의 사진전 '이화동산의 사계'의 영상이 무대 위 스크린을 통해 송출되었다. 동창들은 영상을 통해 이화동산의 아름다운 식물과 강의실, 대강당의 모습을 담은 멋진 사진들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단상에 자리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대강당이 들썩였던 신명나는 합창제

3부 합창제는 김경령 총무, 강승애 회우부장의 공동 사회와 정소희(작곡 89) 음대 동창회장, 문주원(피아노 88) 총동창회 음악부장의 진행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일곱 팀이 참가하여 저마다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이화가족과 동창들에게 흥겨움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관객들 역시 뛰어난 합창 실력과 흥미로운 퍼포먼스로 깊은 울림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각 팀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첫 번째 팀 사범대학 합창단(단장: 윤금진(영교 80), 지휘: 김주연(종음 88), 반주: 이아람(피아노 01))은 빨간 치마에 색동조끼를 차려입고 등장해 흥겨운 장구 장단에 맞춰 민요풍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 한껏 흥취를 돋우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두 번째 참가팀 약학대학 합창단(단장: 황미경(약학 86), 지휘: 최영은(종음 97), 반주: 박유미(종음 97))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랫말에 맞춰 색색의 하트를 들고 등장했다. 좌우로 몸을 흔드는 율동으로 리듬을 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고, 마지막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에서는 하트를 크게 흔드는 동작을 연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대형 푸른 코사지를 장식한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등장한 사회과학대학 합창단(단장: 김정진(사복 80),



1



2


3



4


5


6


7

1. 사범대학 합창단
2. 약학대학 합창단
3. 사회과학대학 합창단
4. 조형예술대학 합창단
5. 대전 지회 합창단
6. 자연과학대학 합창단
7. 생활환경대학 합창단

지휘: 현리사(사복 92), 반주: 양은진(피아노 10))은 CCM 〈축복의 사람〉를 선곡해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라는 행복한 노랫말과 고운 하모니로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듯 감싸주었다.

네 번째 팀은 해마다 기발한 연출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조형예술대학 합창단(단장: 강승주(조소 87), 지휘: 김아영(도예 04))으로, 올해도 역시 독특한 복장과 퍼포먼스로 좌중을 압도했다. 판소리 가락의 〈범 내려온다〉를 개사한 '복 내려온다~'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개사한 〈오세 오세 이화로 오세〉를 번갈아 열창하며 흥겨운 율동을 펼치다가 쥘부채를 활짝 펼쳐드는 동작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합창단의 신나는 퍼포먼스를 즐겼다.

다섯 번째는 대전 지회 합창단(단장: 구정숙(법학 70), 지휘: 정계숙(성악 82), 반주: 권현아(피아노 96)) '대전이화코러스'의 순서로, 한국 가곡 〈남촌〉을 들고 나와 완벽한 화음과 잔잔한 감동으로 18년 창단 역사를 증명하듯 연륜이 느껴지는 무대를 연출했다. 이들은 정기연주회와 순회연주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기량을 쌓아온 실력파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장학사업과 의료기관 합창봉사를 실천하며 이화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여섯 번째 팀은 자연과학대학 합창단(단장: 황북기(화학 83), 지휘: 박찬옥(종음 89), 반주: 한정원(종음 87))으로 〈꽃 파는 아가씨〉의 노랫말에 맞추어 꽃다발 부케를 들고 등장했다. 합창이 연주되는 내내 무대 위 스크린을 통해 꽃사진과 함께 단원들의 연습 장면과 활동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멋진 영상이 흘러나와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일곱 번째 생활환경대학 합창단(단장: 우미형(의직 77), 지휘: 박미경(의직 76), 반주: 이은경(가관 83))은 윤복희 작사의 〈우리〉를 멋지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표현했다. 특히 합창 중간에 삽입된 지휘자와 한 단원의 깜짝 듀엣곡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렴구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를 부를 때는 객석에서도 한 목소리로 따라불러 한마음을 느끼게 했다.

일곱 팀의 공연이 모두 끝나자, 이올연합회 합창단(단장:신난식(성악 73), 지휘: 이수연(성악 92), 반주: 장진영(피아노 96), 글: 양선희(교육 87), 내레이터: 김명희(초교 87)) '이화 아르모니아'의 특별공연 '이화의 노래'가 이어졌다. 1930년대 모교에서 출간한 우리나라 최초 합창곡집 『조선민요합창곡집』 중에서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마련한 기념품

이화의 달 5월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은 동창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창립기념일을 축하했다

우리나라 민요를 3부 합창곡으로 편곡한 독창적인 합창곡 〈도라지타령〉과 모교 최초 남성교수 안기영 교수 작곡의 창작민요 〈한양의 봄〉, 첫 민요합창곡 〈방아타령〉 등을 불러 조선민요합창곡을 재현하는 의미 있는 공연을 펼쳤다.

이어 모교 음악대학 학장인 곽은아(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의 합창제 총평과 시상식 순서가 진행되었다. 곽 부회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하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셨다"며 "객석의 동창 여러분도 진지하게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으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각 팀의 개성에 어울리는 시상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합창단이 호명될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타령 장단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했던 사범대학 합창단에겐 '얼쑤상'이, 아름다운 선율과 행복한 미소를 보여준 약학대학 합창단에겐 '감동상'이, 거룩한 화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회과학대학 합창단에겐 '행복상'이, 기쁨과 흥겨움을 선물해준 조형예술대학 합창단에겐 '기쁨상'이, 프로 합창단 못지않은 실력으로 귀호강을 시켜준 대전지회 합창단에겐 '우수상'이, 손에 꽃을 든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 자연과학대학 합창단에겐 '귀염상'이, '이화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라는 마지막 호소의 화음이 아름다웠던 생활환경대학 합창단에겐 '하모니상'이 주어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감사의 성금을 각 합창단에게 수여했고, 정자영 동창의 선창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성장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함께 교가를 제창하며 동창의 날 모든 행사의 막을 내렸다.

총동창회 임원들은 대강당 입구에서 모교에서 준비한 '이화과자' 선물세트와 총동창회가 준비한 타월세트를 동창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줬다. 한편, 유아교육과 졸업 30주년 동창들은 '올해의 이화인' 한 명을 선정하는 대신 동창들이 마련한 기부금 350만원을 동창회에 전달했으며, 초등교육과에서도 300만원을 기부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의 무대 꽃장식은 이경희(약학 88) 총동창회 문화부장이 직접 집 마당에서 기른 임파첸스(서양 봉선화)를 제공해 알차면서도 풍성한 무대효과를 냈으며, 황규호 명예교수 사진전의 작품으로 제작한 총동창회 기념품에 대한 동창들의 호응이 좋아 구매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석한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24 영원한 이화인

(1974년 졸업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송동수(국문)
전업주부,
국어국문학과 동창회장 및
임원으로 활동



김옥희(영문)
전 상암중학교 교장,
현 진로적성 전문강사,
홍조근정훈장 수상



유동신(독문)
우리 역사 연구소 소장



유영희(사학)
사학과 동창회 선교부장,
결식아동공부방 봉사·후원



양숙정(사회)
(사)빛진자들의 집 이사장,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한혜원(사복)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역임,
송파 청소년수련관장 역임



배경화(화학)
경상북도 도민상 수상,
민속주 안동소주 문화재
보유자 지정(문화재청) 외



이유경(피아노)
국제 밝은사회 재단이사,
2남 2녀 둔 전업주부



이연화(성악)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가톨릭대학교 강사 역임 외



김귀주(동양)
한국화가,
현 (사)녹미미술문화협회 상임이사



황지선(조소)
11회 개인전,
150여 회 초대 및 단체전,
홍익대/이화여대 강사,
여류조각회 회장 역임



신화식(유교)
한양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이순정(교공)
교육공학과 동창회장,
2004년 올해의 이화인



금봉숙(의학)
1976년 미국 소아과 병원 수료,
소아 전문의 1978~2022년
미국 LA에서 개업



장우현(제약)
경희대학교 약대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대 강사 역임



금기숙(의직)
전 홍익대학교 교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의상감독



김희섭(식영)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장



김 명(융합보건)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명예교수,
보건교육콜로키움 회장







2024 올해의 이화인

(1994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게재



피현정(국문)
더파이컴퍼니 대표,
디렉터파이 제작,
엘르 디렉터



김예경(중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서연희(영문)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김엘리자베스(불문)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여성
자문위원, 국제소롭티미스트,
이싹회 회원



유정은(독문)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호텔경영학과 교수



이현정(기독)
YTN 기자·앵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허정은(정외)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리직(21년 8개월)



유정연(문정)
㈜이아이랩 대표 외



이선주(커미부)
유니레버 카버코리아 AHC
대표이사, 로레알 키엘 글로벌
수석 부사장



김문선(사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융합대학
겸임교수



조상미(사복)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희(수학)
KBS, OBS 아나운서,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 수상



박선규(통계)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파트너 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역임



김효정(물리)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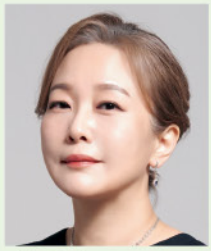
박상희(화학)
㈜켐토피아 대표이사,
환경부 장관상 수상



이지연(생명)
㈜비보존 사업개발본부 이사



임지영(컴공)
한국성서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김현경(피아노)
피아니스트, 칼럼니스트,
이화브릴란테 대표



이아람(관현)
버지니아 Garth Newel Music Center 강사, 샌프란시스코 Sonnet Ensemble 대표



박지영(성악)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역임,
현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김축복(종음)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이화그레이스 콰이어 단원



채수정(한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외



구미경(동양)
선화예고 미술강사 재직,
한국화여성작가회 이사



강수연(서양)
아공(아트와공간) 대표,
이대 동대문병원 아카이벌 라운지 총괄 감독



함연주(조소)
개인전 12회, 그룹전 다수,
조형예술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2001~2020년)



이상영(섬예)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한국자수문화협의회 이사장



김수진(생미)
동양미래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전 제일기획 아트디렉터



이지현(장미)
타옴즈 건축디자인 대표,
바이오센서연구소 대표(미국)



이현정(도예)
동시대 작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갤러리 플래닛 대표



신윤아(체육)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교수 외



김예림(무용)
무용평론가,
월간 《춤과 사람들》 편집위원



이현영(교공)
인사혁신처 사무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송명숙(특교)
강남대학교 초빙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



최은경(영교)
프리랜서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이영희(법대·법전원)
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윤귀염(경영)
공인회계사(1995년~),
국세청자문위원 역임,
현 동서회계법인 파트너



한영아(국제사무)
포스코홀딩스 상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



윤하나(의학)
1994년 김마리 상 수상,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장,
여성 비뇨기능·성의학학회 회장



박현태(간호)
심평원 책임연구원,
신한대·경민대 전임교수,
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초빙교수



김경희(약학)
이대서울병원 약제팀장,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유혜종(제약)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임상개발 전무,
한국임상개발연구회 회장 역임



이주연(가관)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부회장



이은정(의직)
패션그룹형지 상품디자인 사업본부장,
아르마니익스체인지 디렉터



정희정(식영)
㈜에스엠씨앤에스 이사,
㈜JYBooks 교사트레이너



이정화(융합보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보건통계학과 교수







황규호 명예교수

총동창회 주최, 황규호 명예교수 사진전

이화의 사계를 따뜻한 시선에 담다

총동창회는 교육학과 황규호 명예교수의 '황규호 사진전, 이화의 사계'를 5월 21일(화) 오후 4시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었다. 황규호 명예교수는 재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남성교수중창단의 일원이자, 2019년 여름호부터 현재까지 《이화동창》에 표지 사진을 기증해 이화 동산의 아름다움을 동창들에게 일깨워 준 '이화의 비공식 사진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95년에 이화에 부임해 29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입학처장, 교육처장, 사범대 학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올해 퇴임 후 명예교수로 이화와 만나고 있다.



이화 동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들

개막식에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모교 총장, 박은혜 사범대 학장 그리고 남성교수중창단 등 많은 이화인이 참석했다. 장윤재 교목의 기도로 시작한 행사는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감사 인사와 김은미 총장 및 박은혜 사범대 학장의 축사, 감사패 증정, 황규호 명예교수 답사, 박혜온(한음 09) 동창의 대금 축주와 황규호 명예교수가 몸담았던 남성교수중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눈에 담아 가시고, 구매로도 이어지시길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작품 선정과 디아섹 인화 및 설치와 소품 제작 등으로 함께해 주신 조형대 주보림 교수님과 이규원 겸임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 캠퍼스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캠퍼스 곳곳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과 꽃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는 사진을 보며 기운을 받아가시라"라고 축하했고, 박은혜 사범대 학장은 "이화의 명소를 구석구석 다닌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박은혜 사범대 학장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및 많은 이화인이 사진전 개막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교수님께 질투가 날 정도"라며 감동을 전했다.

황규호 명예교수는 답사를 통해 "매년 같은 계절을 찍은 사진이어도 매번 다른 이화의 모습을 살펴보며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긋불긋 단풍색으로 물든 이화역사관의 기와, 격자창으로 스며든 빛과 세월을 머금은 나무 바닥의 고요한 침묵이 어우러진 본관, 봄꽃이 피고 지다 녹음이 물들고 화려한 단풍이 사라진 뒤 흰눈 덮인 자태로 홀로서 있는 ECC의 변신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한 감동을 자아낸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헬렌관의 담쟁이넝쿨, 고층 건물이 없던 시절 탁트인 하늘을 사진으로 접하면서 이화의 역사를 짚어보는 재미도 있다. 그의 카메라에는 이화 동산의 수많은 꽃도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관 앞 화단의 바위취, 교육관 화단의 종지나물, 약학관 화단의 박태기나무꽃, ECC 화단의 만첩풀또기, 본관 화단의 꽃산딸나무, 진선미관 우물가의 죽단화, 인문관 앞 화단의 만첩홍매화 등 교정의 아름다움에 한몫하는 고마운 꽃들이다. 사진전을 둘러본 동창들은 "사진에 이화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가만히 바라만 봐도 힐링된다"는 감상을 전했다.

31일(금)까지 진행된 사진전의 수익금 전액은 '사진이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그의 바람에 따라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총동창회에서는 황 명예교수의 사진 원화 하나당 3점까지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을 원하는 동창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원화뿐만 아니라 에코백, 문진, 기념엽서로도 황 명예교수의 사진 작품을 만날 수 있다(문의 : 총동창회 사무국 02-3277-33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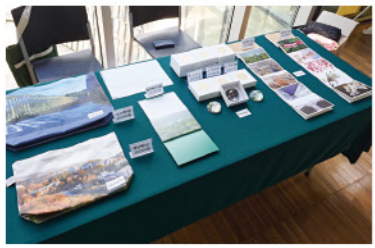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남성교수중창단의 축하 공연(위)과
박혜온 동창의 대금 연주(아래)가 펼쳐졌다

황 교수의 사진으로 만든 각종 기념품,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김준혁 의원의 과거 망언에 대한 이화여대 총동창회의 대응

동창 1,000여 명이 모여 규탄 집회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4월 3일(수) 김준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항의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4일(목) 오후 5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약 1,000여 명의 동창이 자발적으로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총동창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념·지역 등으로 분열돼 국민을 통합할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2022년 8월 14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 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바 있다.

집회에 참석한 동창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이화여대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해 항의했다. 또 "김 후보의 발언이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언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김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1,000여 명 동창들이 연 규탄 집회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4월 2일(화) 자신의 SNS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화여대 재학생·교직원·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글을 올렸지만, 총동창회는 "김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블로그에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했다"며 "여론이 악화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이 사과를 권고하자 사과 입장문을 올렸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화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서명운동

총동창회는 규탄 집회를 계기로 4월 5일(금)까지 이틀간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동창 1만 1,533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4월 8일(월) 오후 3시 이명경 총동창회장과 총동창

회 임원진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김준혁 후보 사퇴 촉구 이화인 서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총동창회는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5월 31일(금)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을 맞아 '이화의 명예를 훼손한 김준혁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화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6월 26일(수)부터 동창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링크가 올라와 있다.(서명운동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02-3277-3386~7)



총동창회 임원진의 민주당사 항의 방문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김준혁 후보 발언에 대한 이화여대 총동창회의 입장

1886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던 시대에, 이화는 여성 교육의 횃불을 환히 올렸습니다. 이후 인습과 차별의 벽을 허물며 여성의 인간화와 여성 전문인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왔고, 이는 한국 사회의 공동선과 공익을 촉진해 온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이화의 역사이자 자긍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김준혁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지역 등으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기에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치인을 필요로 함에도, 젠더를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준혁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오염시키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이에 이화 동창은 김준혁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년 4월 3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 명 경

이화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 이화인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자라게 되면 뭇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됩니다. 138년 전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 여성 교육의 장을 새롭게 개척하였던 우리 이화 역시 지금까지 한국 여성사와 민족사에 오롯한 발자취를 남기며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이화가 향유하고 있는 가치와 성과는 과거 어려웠던 시기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화의 모든 선배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삼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화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가치는 허위의 사실과 억측에 근거한 김준혁 의원의 왜곡된 발언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폄훼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성 교육의 선각자로서 이화의 기틀을 닦으신 김활란 총장은 오욕의 인물로 비하되었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이루어 온 이화의 역사와 명예는 현저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화는 그동안 관습의 굴레에 맞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것처럼 한 의원의 여성 차별적인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분연히 맞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26만 이화의 동창들에게 고합니다!

왜곡된 편견과 억측에 맞서 이화의 소중한 가치를 오롯이 지켜내기 위하여 김준혁 의원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화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화인들의 총의를 모아 주십시오.

이화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이화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31일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장명수 배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 배상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명경 배상



예수 안의 영생으로 거듭난 이화
합심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다



5월 14일(화) 오후 1시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는 '거듭남(요 3:5)'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1부는 김경령(수학 84) 총동창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대강당 무대 위에는 100명 내외의 동창들이 모였는데, 이화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각지에서 모인 것이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힘있게 찬양하였고, 김동근 교수의 지휘와 전은배(종음 96) 동창의 오르간 반주, 김재희(피아노 96) 동창의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찬양 후에는 박성연(경영 88) 경영대 학장이 나와 대표기도를 하였고 이후 강승애(체육 95) 총동창회 회우부장이 나와 요한복음 3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봉독하였다. 이어서 종교음악과 동창합창단인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 합창단이 지휘자 이치복(종음 97) 동창의 지휘에 따라 〈오직 성령이〉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 후에는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이 '거듭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 교목실장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서 살

학생연합 찬양(왼쪽)과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의 특송이 울려퍼졌다





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감사찬양예배의 주제인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찬송하였고 조선영(영문 74)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봉헌 기도를 올렸다. 이후 안선희 교목실장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바로 이어지는 2부 순서는 김미순(기독 75) 17대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교직원 대표 김은미 총장, 의료원 대표 김영주 교수, 재학생 대표 김지윤(이기연 대표, 대학원 미디어인터랙션 전공) 재학생, 동창 대표 이명경 총동창회장이 차례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들은 모든 이화인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을 주었다. 이후 사회자의 인도로 이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대강당은 순식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장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이화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다.

이후 스크랜튼 영상을 시청한 데 이어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혜경(특교 85) 동창 선교사의 간증이 있었다. 전쟁과 가난 가운데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의료(구순구개열 수술 등)와 한국어 교육, 유치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랜선 찬양 영상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랜선 찬양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이화 동창 선교사 중 8명-오은주(필리핀/영문 74), 신율미(미국(디아스포라 일본인 선교)/수학 84), 김지윤(일본/성악 07), 김은경(캄보디아/성악 04), 홍유안(캄보디아/국제학부 16), 김혜련(아이티/정외 88), 박은진(말레이시아/피아노 96), 하윤희(베트남-한국/경영 90)-이 참여했다. 이후 신종윤(대학원 약학 전공) 학생의 간증이 있었고 재학생 10명이 나와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한 목소리로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교수의 지휘와 왕승희(피아노 73) 동창 선교사의 선창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렸고, 이화의 교가를 힘있게 부르며 감사찬양예배를 마쳤다.

감사찬양예배가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밤 9시마다 감사찬양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카톡방에 올려 합심기도 하는 기도회 시간을 가져왔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 감사찬양예배에 대한 소원함들을 부어 주셨고 동창들의 마음이 감사찬양예배에 한마음으로 모이고 집중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글·이수진(조소 05)


안선희 교목실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회장


김영주 교수


김지윤 재학생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잇대고 이어나가는 동창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총동창회는 4월 25일(목)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은미(사회 81) 총장 등 모교 관계자와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김영주(유교 71) 고문, 총동창회 임원,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을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 한 해 총동창회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각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의 활동 소식을 나눔으로써, 원활하게 협력하고 유대를 키우는 만남의 자리이다.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의 기도와 이명경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김은미 총장의 모교 소식,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참석자 소개와 각 과, 대학(원), 국내 지회의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카무카무 우에' 즉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는 뜻의 우간다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화를 시작하시고, 이화의 스승과 선배들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화 138년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막을 수 없고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구약전도서 말씀을 인용하며 "앞으로 오는 세대의 젊은 동창들이 이 아름다운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기를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이화 스마트 캠퍼스 조성 사업 등 모교 소식 전해

이어 김은미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16일(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린다



한은주 부회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은미 총장, 김영주 고문(왼쪽부터)

토머스-그린필드 UN 주재 미국대사의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 11일(목) 프란시스 모리스(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명예관장 역임·현 이화여대 초빙석좌교수)의 특강-〈테이트 모던: 변혁의 생태학〉을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캠퍼스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학생 지원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학생증을 태그하면 건물 출입과 출석체크가 동시에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창들에게도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ewha.ac.kr' 이화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동창이 자랑스러운 이화의 공식 메일 계정을 발급받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이를 통해 모교 소식의 원활한 전달, 이화에 대한 소속감과 동창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총장은 생활환경관 재건축은 ECC의 두 배인 1만 9,000여 평의 대규모이며 인허가 등의 제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이화 최초의 도서관인 헬렌관은 건축 당시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을 담은 뉴미디어 기반의 첨단 도서관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캠퍼스 건립을 통해 이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창립 150주년을 향해 이화가 힘차게 도약하는 데 동창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며 모교 소식을 마쳤다.

2024 총동창회 행사 보고와 동창들의 참여 당부

1부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샌드위치 도시락을 들며 담소를 나눈 후, 2부 2024년도 총동창회 사업계획과 각 과, 대학(원) 및 국내 지회의 보고를 이어갔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5월 14일(화) '감사 찬양 예배'를 시작으로 '황규호 사진전-이화의 사계' 전시가 5월 21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ECC 대산갤러리에서 진행된다고 공지하며 많은 관람과 후원을 부탁했다.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기념식에 대해 '영원한 이화인'은 18명이, '올해의 이화인'은 45명이 추대되었으며, 올해는 행사 예복이 달라졌다고 알렸다. 합창제는 선착순으로 일곱 팀만 신청을 받았고, 특별히 올해는 국내 지회 중 대전 지회가 합창제에 참석해 기쁘고 즐거운 잔치 자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9월 10일(화) '총동창회 기금마련을 위한 대바자'에도 국내 지회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으며, 10월 5일(토) '제10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젊은 동창 부부가 자녀와 함께 모교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작년에 200명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될 만큼 관심이 뜨거워 증원 여부를 숙고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11월 25일(월) 예정된 '2024 이화인의 밤' 행사는 정기 임원회에서 다수결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동창들이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자 소개와 활동 보고하며 우의 다져

이어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과 국내 지회 보고에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각자 소개와 활동을 보고하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인문대 소식을 전한 영문과 홍성미(영문 78) 회장은 작년에 '학관 리모델링 및 신축 봉헌식'을 가져 새로운 환경에서 후배들이 학업을 하게 되어 흐뭇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어 영문과는 2025년 100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집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불문과 송기정(불문 80) 회장은 재작년에 모교 불문과 교수를 은퇴하고 동창회장을 맡은 후 젊은 동창들을 많이 참여시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독문과는 전임 회장이 9회(1975년 졸업) 동창에서 신임 24회 박지나 (1990년 졸업) 동창으로 세대교체 되는 등 동창회를 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연대 황북기(화학 83) 회장은 합창제에 1등으로 참가 신청을 했고, 전날 밤에도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열심히 연습했다고 보고하며 열의를 보였다. 수학과 문 온(수학 87) 회장은 작년 9월 수학과 70주년 행사를 잘 치렀다는 소식과 함께 자연대 다섯 개 학과가 똘똘 뭉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음 주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선배와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렸다.

음악대 정소희(작곡 89) 회장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알리며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박형례(한음 07) 총무는 한국음악과 5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0일(월) '김영의 홀'에서 '창립 50주년 동문음악회'를 준비했다고 알리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종교음악과 이세리(종음 15) 총무는 우리나라에 교회음악을 연구하는 학과가 두 학교에 있었는데 현재 모교에서는 종교음악과가 없어지고 건반악기과로 통



총동창회의 사업계획을 경청하고 있는 동창들

폐합되었다고 전하며, 종교음악과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범대 윤금진(영교 80) 회장은 아직 현직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이 많아 사범대 과 회장들이 간담회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범대인지라 모범적이고 수동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주었다. 법대·법전원 안경희(법대·법전원 86) 회장은 국문과 현혜경(국문 76) 회장에게 학부 때 교양 국어를 들었다고 전하며, 첫 직장에서 멘토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은사님과 함께 참석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사회과학대 임복희(행정 93) 회장은 사진전에 부쳐 '이화의 사계'의 시를 읊기도 했고, 문헌정보학과 김노미(문정 88) 회장은 5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더 잘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정외과 김희정(정외 88) 회장은 동창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 뛰기 대회'를 열어 여의도 공원을 두 바퀴 돌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했으며, 이번 모교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 회장으로서 여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커미부 조희수(커미부 86) 회장은 이제 막 졸업한 신입 동창들과 현업에서 물러난 원로 선배님들의 다리 역할이 되도록 동창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야겠다고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심리학과 라현정(심리 91) 회장은 연수, 휴학 등으로 입학 동기들이 졸업연도가 상이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졸업 30주년 '올해의 이화인'과 졸업 50주년 '영원한 이화인'의 졸업연도 자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국제사무학과 고현주(국제사무 90) 회장은 지난 4월 20일(토) 정기총회를 가져 해외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기 어려운 동창들을 위해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보고하면서, 동창들에게 배부한 선물에 대해 협찬 업체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소상히 알리며 동창들에게도 협찬받을 때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국내 지회에서는 순천 지회, 대구 지회, 인천 지회, 전주 지회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순천 지회 고선영(불교 82) 총무는 "멀리 순천에서 오느라 새벽에 일어나서 왔는데, 달라진 캠퍼스가 예쁘고 뿌듯하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대구 지회 김영미(교육 82) 회장은 일선에서 퇴임하고 오니 동창회에서는 거의 막내라면서 젊은 후배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천 지회 김자영(교육 82) 회장은 80대부터 40대까지 40여 명의 선후배가 모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주 지회 유희연(영교 86) 회장은 전주 지회 역시 노령화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오니 젊은 동창들이 있어 신세계에 온 듯하고 모교 이화의 발전이 영원하리라 생각된다면서 좋은 기를 많이 받아서 내려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매주 화요일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에 모여 모교와 동창 선교사, 의료원 등 이화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알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감사찬양예배'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고문은 총동창회에서는 입학연도가 아닌 졸업연도로 본인을 소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빛나는 이화인'은 사회와 모교, 총동창회에 공헌을 많이 한 (현직) 동창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이며,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은 각 과에서 30주년·50주년 동창 대표로 '추대'하는 것이므로 '수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프라노 정자영(성악 93) 동창의 선창으로 교가를 한마음으로 부르면서 이화 사랑 가득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참석한 동창들에게는 모교에서 '이화과자세트'와 파우치를, 총동창회에서는 떡을 선물했다.

글· 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동창들은 단과대학별로 모여 앉아 소개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우의를 다졌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이규연 동창

일대일 아동 결연 통해 캄보디아 빈민에게 도움을 주소서



"쏙 써바이 떼~! (안녕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곳,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포이펫은 인구도 많이 늘고 태국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도 많아서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후부터는 시내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교통이 복잡해지고 도시가 북적거립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기쁜 일이나 포이펫의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기에 불편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작년 저희 가정에 태어난 둘째 딸 아란이는 이제 생후 3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캄보디아로 건너오며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염려가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아프지 않고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딸 아린이(만 5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너무 심심해 하고 있어서 아린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교팀 방문

올 겨울방학 시즌(1~2월)에는 국내 여러 교회에서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첫 주 황현교회를 시작으로 아름다운꿈의교회 학생들, 복된교회 청년부, 소망교회 의료선교부, 화곡중앙교회가 2월까지 차례로 방문하여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방문과 사역이 포이펫 빈민들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하고, 크고 작은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특히 설날 연휴를 반납하고 방문한 소망교회 의료선교팀의 의료사역을 통해

서는 심장병 수술이 시급한 환자를 발견했고 거의 모든 과가 총 출동된 이틀간의 진료에 900여 명 캄보디아인이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심장병 환자는 조만간 한국으로 가서 수술받을 예정입니다.

세종학당

포이펫 세종학당이 3월 5일(화) 개강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이펫이 지방이다 보니 사람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두 분의 귀한 크리스천 선생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소망하고 준비했던 세종학당이 잘 운영되고, 많은 청소년에게 복음 전파의 통로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명줄(일대일 아동 결연)

아동 결연이 이제 총 45가정 되었습니다. 빈민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가정을 선별하여 결연을 맺고 매달 식료품과 학용품,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00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 방문하셨던 분 중에 5년째 결연을 통해 기도와 사랑을 주고 계신 정해정 집사님과 쏙니의 만남은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글·이규연(성악 09)



기·도·해·주·세·요

1.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포이펫 빈민촌 1,700여 가정 주민 어른들이 주일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2. 모든 사역(빈민 구제, 교육 사역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돕는 손길들과 물질이 끊이지 않고 채워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3. 이기원 선교사와 아내 이규연 선교사, 두 딸(아린 5세, 아란 300일)이 선교지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아린이의 교육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4. 주파송교회가 2022년 이후 중단되었는데 저희 가정과 사역에 함께해 주실 새로운 주파송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5. 사역 차량 구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02년식 22년 된 차량으로 엔진도 2번 교체(침수)했습니다(잦은 고장으로 한번 수리할 때마다 큰 비용이 발생하며,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는 이화인

'최초'의 수식어와 함께 산 원귀정 동창

열정과 끈기로 달려온 오뚝이 인생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호치민 지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께 큰 기쁨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원귀정(영문 89) 동창. 호치민 휴텍(Hutech)대학교 베트남-한국 기술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부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 간부직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다. 그 외에도 원 동창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럿 있다. 이랜드 신규 사업부인 내의사업부 론칭, 최초의 경영관리직 여성 임원 등 이랜드의 굵직한 사업에 계속 이름이 거론된다. 또 있다. 베트남 최대 의류회사 중 하나인 Somkim Fashion에서 사퇴 후 복직해 근무한 기간까지 10년을 일한 최초의 외국인 여성 CEO이다. 이화 동창에게 더욱 의미 있는 최초 기록이 있는데 원귀정 동창은 2020년 승인을 받은 호치민 지회 최초 동창회장이기도 하다. 그녀의 수상 소감처럼 모두가 성실함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앞만 보고 달려 얻어 낸 '최초' 타이틀

원 동창이 이화를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당시, 아니 그 이전 선배들에게는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획기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 대부분이 그랬던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 동창의 '최초'이력들은 묘한 매력이 있다. 열정과 끈기의 그릿이 있다. 무엇보다 원 동창은 강점으로 승부하는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지고 있다. 신생 기업이었던 이랜드 입사 이유가 그랬다.

"그때는 전공과 상관없는 입사가 보편적이었죠. 졸업반을 위한 취업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OO항공, OO백화점, OO법률사무소 등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었어요. 솔직히 외모, 영어 실력은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신생 기업인 이랜드는 남녀 차별도 없고, 성장에 대한 욕구와 성실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군요. 성실이라면 자신이 있었기에 도전했어요."

의욕에 찬 성실한 직원을 이랜드는 금방 알아보았다. 입사 후 바로 신생 브랜드 Hunt 사업부로 발령받은 원 동창은 당시 이대 졸업생 5인방이 주축이 되어 '헌트 신화'를 만들어 냈다. 이후 신규 사업 부문인 내의사업부를 론칭하고, 내의 브랜드를 5개까지 확장했다.

힘차게 출발선을 떠난 100미터 달리기 선수 같았다. 뒤는 물론 옆도 보지 않고 달렸다. 속도는 엄청났다. 그룹 내 최고의 수익 사업부로 성장, IMF 시기에

이랜드 외자 유치 사업부로 이랜드 유동성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 도산이 줄 잇던 IMF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던 이랜드는 뉴코아를 인수, 유통사업부를 본격화하면서 핵심 상품부인 모던하우스 책임자로 원귀정 동창을 선임했다. 동시에 이랜드 최초, 최연소 영업라인 임원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회색지대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일 아니면 가정,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 퇴근하는 조직문화에서 성공하는 길은 성실함만이 무기였습니다. 자연히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기꺼이 자처해 주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대신 살림도, 육아도 맡아 주셨습니다. 남편의 헌신, 특히 어린 아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나의 성공 뒤에는 늘 가족의 그림자가 함께했답니다."

고통의 순간 다시 일어나는 회복탄력성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고통의 순간을 수없이 이겨냈다. 위기가 어찌 없었겠는가. 불혹의 나이로 접어든 즈음, 원 동창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퇴사를 결심하고, 귀하게 찾아온 늦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베트남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따라 이주했다. 진로 단절이 되어 경제활동은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던 그때, 베트남 Somkim Fashion에서 뜻밖의 제안이 왔다. CEO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기꺼이 수락했다. 베트남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과감했다. 부족함이 많았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베트남 문화는 물론 베트남어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랜드가 다시 원 동창을 불렀다. 원 동창은 중국 아동내의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남아 시장까지 활동무대를 넓혔다. 베트남 패션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솔직히 시집 잘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권유로 들어간 이대 영문과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완전 달랐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4년이 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체적인 여성상을 정립하고, 영어를 배운 것이 이랜드에서의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낯선 베트남 의류회사의 CEO 생활은 이랜드에서 익힌 업무 능력과 정신력으로 버틴 시간이었죠. 힘든 CEO 생활이었지만 이랜드로 다시 돌아와 중국 사업부와 동남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힘겨운 고통은 거름이 되어 저를 더 우뚝 세웠어요."

뿌리고, 자라고, 무르익으며 성숙을 거듭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혹의 시간을 이겨냈다. 무수한 위기와 시련, 다시 기회와 성공을 반복하며 바람처럼 떠나보냈다. 지천명의 시간,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던 원 동창에게 터닝포인트의 계기가 찾아왔다.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아들의 조언으로 맞이한 인생 2막과 3막 사이

"군대를 제대하고 성인이 된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힘든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많은 일도 이뤘고, 가지

셨으니, 옆도 뒤도 돌아보는 삶을 사세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의 조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옆도, 뒤도 돌아보는 삶. 먼저, 베트남 성당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부터 시작했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선배도, 후배도 모두 다르게 보였다. 그때 이랜드 선배이자 이대 베이징 지회 강미경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 모교 관계자로부터 호치민 지회 설립을 제안 받았다는 것이다. 원 동창은 뜻이 맞는 사람부터 찾았다. 마음을 모으니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척되었다. 2020년 11월 총동창회로부터 56번째 해외 지회 승인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베트남이 봉쇄되면서 다들 호치민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람이 그리울 때였다.

"호치민 곳곳에서 살고 있는 동창들을 찾았습니다. 고구마 뿌리 캐듯 모았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모교,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환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매년 모교와 지역사회에 각각 한 차례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모교 건물 신축에 우선적으로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 베트남-한국 기술교육원 신입생 입학식에서 이화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베트남-한국 기술교육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한편으로는 더 먼 미래를 계획하며, 자기계발을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능력이 필요했다. 영어는 어느 정도 구사하지만 베트남어는 더 익혀야 했고,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한국어교원 자격과정에 도전했다. 자격증을 따자마자 운이 좋게도 휴텍대학교에서 베트남-한국 기술교육원 부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 마치 계획된 운명처럼. 인생의 2막과 3막 사이 새로운 경제활동이 시작되었다.

"한국 기업 및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산학협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또 한국의 대학들과 학생교류 및 학업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곳 학생들은 각자 전공이 있고 한국어는 제1외국어로 공부하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 필요하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기업의 잡 페어 같은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업과 학생들 사이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함께 교육함으로써 입사 후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인력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숨은 노력

원 동창은 공부를 지속하고 있다. MBA 과정이다. 기술교육원의 질 높은 교육과 성과를 위해 미국 Lincoln 대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어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겠다고 한다. 원 동창은 "죽는 날까지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녀'

로서, 오늘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지녀'로 살고자 한다"라며 활짝 웃는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성장 마인드 셋으로 장착한 삶의 태도와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다. 실패해도 일어설 줄 아는 회복탄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끈기가 있다. 과연 운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일까? 아니다. 그들의 숨은 노력, 보이지 않는 힘겨운 사투가 있었으리라.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힘차게 출발선을 떠났던 원귀정 동창.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반환점을 돌아온 마라토너를 닮았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마라토너. 길가에 나와 응원하는 사람들의 박수에 힘을 얻는다.

"지금 열심히, 성실히 하는 일들과 성과들은 훗날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 하나로 꿰어져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내게 딱 맞는 일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녀는 믿는다. 그리고 이화의 후배들에게 말한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글 · 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사장 박혜영 동창

의료 수출과 봉사의 실천 통해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다



우즈베키스탄의 유서 깊은 도시 부하라(Bukhara)에는 365일 태극기가 걸려 있는 첨단 병원이 있다. 관절 · 척추 전문병원인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의 우즈베키스탄 지점이다. 이 '낯선' 병원의 시작에 2024년 '빛나는 이화인' 상의 수상자인 박혜영(의학 89) 동창의 노력이 담겨 있다. 현재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의 이사장인 박 동창은 1989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의료인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

'힘찬' 병원의 시작, '전문병원'의 초석을 다지다

"학교를 졸업하고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거쳤어요. 거기서 남편(이수찬 박사, 목동 힘찬병원 대표원장)도 만났죠. 저는 내과 전공이고 남편은 정형외과 전공인데, 2002년에 남편과 의기투합해서 인천 연수동에 힘찬병원을 열었어요. 첫 번째

병원이었죠." 힘찬병원은 현재 인천, 서울, 부산, 창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힘찬병원은 관절과 척추질환 분야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질 높은 수술도 가능하고 동시에 환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접근성 높은 전문병원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출발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문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어요. 대학병원과 일반 소규모 의원으로 양분돼 있던 시절이라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했죠. 우리 병원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무릎인공관절 수술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환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대학병원급의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을 만들어 보고 싶었죠."

박 동창은 힘찬병원의 성장동력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전문병원이란 콘셉트와 함께 방문간호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꼽았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아도 이후에 재활과 일상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금방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방문간호 서비스였어요. 수술받은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재활 경과를 보살피는 사후 서비스예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첫 번째 개원한 곳이 인천 연수동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도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찾아오셨어요."

2020년 센터 확장 개소식에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왕이 참석했다



병원 이름의 '힘찬'이란 형용사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지금이야 형용사를 붙인 브랜드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만 해도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어요. 개원 초창기에는 전화로 '힘찬병원 박혜영입니다' 하면, 전화 받는 분들이 잘 알아듣질 못해 '뭐라구요? '숨찬'이요?'라고 되묻는 해프닝도 종종 있었어요. 이제는 병원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힘차고 건강한' 관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이름 덕분에 병원도 보다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라 여기고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클럽'의 감동이 우즈베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로 이어지다

현재 박 동창은 국내 병원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와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병원 힘찬 관절·척추센터, 두 곳의 운영도 맡고 있다. 전문성 높은 국내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고 다양한 검사 및 치료 장비를 구비해 해외 환자들에게 선진 치료를 제공하면서 K-의료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병원은 2018년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병원은 2019년에 시작했어요. 해외 의료사업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의료 수준과 의료수가의 차이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했던 문화적 차이까지,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았죠.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병원은 개원하고 몇 달 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는 바람에 거의 3년 동안 발이 묶였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의료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박 동창은 '스칸디나비아 클

럽'의 이야기에서 느꼈던 감동이 큰 버팀목이 돼 주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뷔페식당이 있었어요. 1950년대 후반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을 돕기 위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세 나라 의료진이 한국에 파견돼 병원(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짓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한국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기술도 전수했어요. 이때 파견된 의료진들이 식사하던 식당이 '스칸디나비아 클럽'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열악한 타국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의료진들의 발자취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인 '스칸디나비아 클럽'의 역사는 박 동창에게 의사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의 귀감으로 다가왔다. " '스칸디나비아 클럽'의 의료진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K-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다

힘찬병원 의료진들은 해외 의료사업을 '봉사'가 아닌 '교육'이라고 부른다. "우즈베키스탄은 의료 수준, 설비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나라예요. 이 나라의 의료 수준을 올리는 데 기여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의료진이 현지에 가서 치료와 수술을 하는 건 물론이고,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의료진의 도움 없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진들 스스로 병원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여러 가지로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 많죠. 특히 현지 의료진 교육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아요. 사소하게는 수술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 개념조차 아직은 희박한 수준이라서 아주 기초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기를 잡아 주는 '봉사'를 넘어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해외 의료사업에서 힘찬병원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진상의원'과의 인연

인터뷰 중에 박 동창이 한 권의 책을 건넸다. 『전진상에는 유쾌한 언니들이 산다』(2020, 오르골)라는 책이다. 전진상(全·眞·常)의원(정식 명칭은 천주교서울대교구전진상의원)은 고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으로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자리를 잡고, 국제가톨릭형제회(A.F.I)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약사들이 운영해 오고 있는 의원, 복지관, 약국을 아우르는 기관이다. 이 책은 50년 가까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 복지 활동을 펼쳐온 전진상의원과 그곳 '전진상 식구들'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이다. 박 동창은 전진상의원과의 오랜 인연과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십여 년 전부터 전진상의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내과 환자를 봐 드리고 있어요. 전진상의원에서 상주 의사로 일하고 계시던 정미경(의학 85, 2016년 작고) 선배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전진상의원과 인연을 이어오면서 이분들의 봉사의 삶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어요." 박 동창은

전진상의원의 역사와 그곳 식구들의 선한 영향력의 자취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이 책을 내자고 제안했다.

"배현정(마리 헬렌 브라쇠르 / 벨기에 출생) 원장님을 비롯해 이분들이 그동안 해온 진한 돌봄의 역사는 나눔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꼭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초창기부터 몸담아온 분들이 이미 칠십 세를 훌쩍 넘기셨기에 이분들이 건재하실 때 생생한 이야기를 모으고 흩어진 자료들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진상의원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봐 온 박 동창은 전진상 식구들에게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동의를 구하고,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던 지인에게 재능기부를 청하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 힘을 보탰다. "2025년, 내년이 전진상의원 50주년이에요. 이 책은 좋은 에너지가 담긴 소중한 기록이에요. 내년 50주년을 계기로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 동창은 어릴 때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수녀가 아닌 의사가 됐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의사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세상이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전진상의원처럼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분들을 곁에서 지지하는 것도 작게나마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서 앞장서는 일은 잘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화와 함께해 온 시간들, 이화의료봉사회와 동창회

박 동창은 오랫동안 의대 동창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봉사하는 거라 생각해서 동창회 활동에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쯤 의대 동창회장님이 동창회를 통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며 동창회 활동을 권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동창회에서 박 동창은 2013년부터 의과대학 동창회 사업이사, 정보통신 이사를 거쳐 현재 의대 동창회 재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화의료원 발전후원회 MCC(Mokdong Caring Complex) 단장으로 목동 병원을 리뉴얼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동창회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이화의료봉사회 활동이라고 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임신, 성병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십 여 곳의 쉼터 아이들에게 때에 맞춰 예방접종도 하고, 필요한 치료를 해주는 일이에요. 이화의료봉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동창이 쉼터 아이들에게 단순히 치료와 진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려고 애쓰고 계세요. 일 년에 한두 번씩 쉼터 소장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는데 소장님들 뵐 때마다 늘 마음이 따뜻해져요. 의료봉사회 일은 제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사로서, 병원 경영자로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박 동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닮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 따라 살기를 실천하는 가장 최적의 일,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힘찬병원의 미션도 '의료 문화를 선도하여 환자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예요. 지금은 경영에 신경을 써야 해서 예전보다는 현장 진료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 스스로는 여전히 진료실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환자를 만날 때 가장 보람 있고 기뻐요."

글 · 이미란(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1

2024 '영원한 이화인'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총동창회는 4월 6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을 각각 가졌다.

먼저 오전 11시에는 졸업 50주년 동창 중 각 과를 대표해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 추대 발대식이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임원 소개 후 축사의 자리에서 "이번 추대식을 계기로 함께 모여 서로 알아가며 사랑과 격려, 배려를 나누는 친구가 되시길 소망한다"고 축하하였다.

신난식(성악 73) 이울(이화여대 올해의 이화인 약자, 이하 이울) 회장직무대행의 이울 소개, 임원 소개, 최은영(물리 87) 총무의 이울 영상 소개가 있었고, '영원한 이화인'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18명의 '영원한 이화인' 중 현장에 14명, 줌을 통해 1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는 송동수(국문 74)·김옥희(영문 74)·유영희(사학 74)·유동신(독문 74)·김귀주(동양 74)·황지선(조소 74)·이연화(성악 74)·양숙정(사회 74)·한혜원(사복 74)·배경화(화학 74)·신화식(유교 74)·장우현(제약 74)·이순정(교공 74)·금기숙(의직 74)·금봉숙(의학 74) 동창이다.

한편 이울 역사상 처음으로 동창의 날 기념식 당일입을 예복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한은주(특교 79) 부회장은 "올해는 한복 외에 이화그린색 학위수여복을 예복 안에 포함시켜 이 둘을 투표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며 "운영 규정 6조에, '예복은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 여기서 결정되는 안을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지난해 한복을 공급했던 꿈인한복의 배미경 원장이 나와 배꽃 현상 장식, 한복 치마 변경 등의 안을 제안했다. 이어 박선희(장미 88) 이대 패션디자인연구소장이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화그린색의 이화 학위수여복의 의미와 상징, 기능과 효율성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예복안 투표는 비밀투표 결과 이화그린색 이화 학위수여복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처음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선보이기로 하였다.

한편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졸업 30주년 동창 중 각 과를 대표해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45명의 추대 발대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현장과 줌을 포함 31명(피현정(국문 94)·김엘리자베스(불문 94)·김예

2024 '영원한 이화인'





2024 '올해의 이화인'

경(중문 94)·유정은(독문 94)·이현정(기독 94)· 허정은(정외 94)·조상미(사복 94)·박선규(통계 94)·김효정(물리 94)·김현경(피아노 94)·이아람(관현 94)·박지영(성악 94)·김축복(종음 94)·채수정(한음 94)·구미경(동양 94)·강수연(서양 94)·이상영(섬예 94)·김수진(생미 94)·이지현(장미 94)·이현정(도예 94)·신윤아(체육 94)·김예림(무용 94)·이현영(교공 94)·송명숙(특교 94)·이영희(법대·법전원 94)·윤귀염(경영 94)·김경희(약학 94)·유혜종(제약 94)·이주연(가관 94)·정희정(식영 94)·이정화(융합보건 94))의 동창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예복 안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고, 며칠 시간을 두고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2
4월 정기 임원회에서 상반기 행사 세부 논의

2024년 4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 43명의 임원 중 참석 33명, 위임 6명, 불참 4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4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봉사한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동창의 날 기념식 합창제에 일곱 팀(자연대, 사회대, 생활환경대, 대전 지회, 조형대, 사범대, 약대)이 신청하였고, 축하 연주 두 팀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념식 선물은 총동창회에서 타월, 모교에서는 이수매니지먼트의 과자를 준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윤금진(영교 80) 사범대 회장은 작년에 혼란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방에서 참석한 동창들이 단체로 선물을 먼저 받아 혼선이 초래된 데다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은 별도로 나누어 준다는 전달사항을 받지 못하고 먼저 배부해 혼란이 있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동창이 아닌 동네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강승주(조소 87) 조형대 회장은 "강당 사이즈에 비해 무대 마이크가 여섯 개에 불과하고 스피커 성능도 안 좋아 음향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아쉽지만 대강당 음향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대신 리허설 등을 통해 잘 적응하고 보완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안경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은 "기념품 가방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물건이 늦게 도착해 중간에 넣다 보니 물건의 결손이나 중복을 이중으로 점검하느

4월 정기 임원회 모습



라 시간이 들었다"면서 물건 넣는 순서에 맞게 미리 준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단상에서는 '올해의 이화인'이 '영원한 이화인' 뒤에 가려서 조연 같은 느낌을 주었다면서 단상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 돋보일 수 있게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하며 프로그램을 단단하고 세밀하게 엮어 보겠다고 답했다.

3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열려

4월 25일(목) 오후에 제9회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4월 정기 임원회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을 예고하였고, 선정위원으로는 당연직 6명(고문, 총동창회장, 부회장, 총무, 문화부장, 홍보부장) 외에 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임복희 사회대 회장과 안경희 법대·법전원 회장이 포함되었다.

선정위원들은 올해 추천된 6명을 추천 자료에 근거하여 진정성 있는 심사를 거친 뒤 원귀정(영문 89) 동창과 박혜영(의학 89) 동창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원귀정 동창은 국내 의류 기업의 리더로 일하다 베트남 호치민으로 건너가 호치민 지회를 창립하고, 현재 휴텍대학교-베트남 한국기술교육원 부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박혜영 동창은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사장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의료취약 계층 돌봄사업 및 청소년 장학사업에 오랜 기간 헌신한 전문의료인이다.

4

올해의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 투표로 예복 변경 결정

2024년 5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3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선영 선교부장은 5월 14일(화) 열리는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참석을 독려하며, 헌금 전액이 동창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고 알린 뒤, 합창에 참여하려면 흰색 상의와 검정 하의를 입고 참석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5월 21일(화)부터 31일(금)까지 열리는 '황규호 교수 사진전-이화의 사계'를 위해 조형대학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사진으로 만든 엽서와 에코백, 문진을 기념품으로 준비 중이며, 현장에서 사진 작품과 기념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반기 중요 행사인 '동창의 날' 행사 준비 상황을 알리며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빛나는 이화인' 6명의 추천 후보 중에 최종 2인이 선정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영원한 이화인' 및 '올해의 이화인'의 예복은 이화그린색 학위수여복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올해부터 '영원한 이화인'도 입장 행진을 하는데 18명의 '영원한 이화인'은 골드 라이닝의 스톨을 걸치고 부케를 들고 입장하고, 45명의 '올해의 이화인'은 실버 라이닝의 스톨에 본인 이름을 새긴 곰돌이 인형을 들고 입장한다고 알렸다.

변은경(간호 83) 간호대학 회장과 황미경(약학 86) 약학대학 회장은 "동창의 날에 총동창회에서 식사 제공을 재개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5

이화인 서명운동 참여 부탁하며 상반기 임원회 마무리

2024년 6월 정기 임원회가 6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31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황규호 사진전–이화의 사계'에서 사진 선정과 디아섹 액자 제작 및 전시 디스플레이, 소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큰 도움을 준 조형예대 부학장 주보림(장미 93) 교수와 이규원(장미 04) 겸임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보림 교수가 나와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김준혁 의원의 과거 망언에 대한 총동창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교와 함께 여러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하면 동창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이어 감사찬양예배와 황규호 사진전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조선영 선교부장은 "감사찬양예배에 헌금이 1,600만 원 들어와 동창 선교사에게 넉넉히 보내드렸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전에 대해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사진으로 만든 소품이 상당량 판매되었고, 전시작 45점 중 18점이 판매되었는데 전시와 판매는 계속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총동창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규호 사진전' 작품 선정과 인쇄 및 기념품 제작에 힘을 보탠 주보림 교수(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의 바뀐 예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으나 "50주년 동창과 30주년 동창의 구분이 잘 안 되어 아쉬웠다"(황북기 자연대 회장)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강당 입구에 천막을 친 부스를 설치해 '영원한 이화인' 및 '올해의 이화인' 동창들이 가족 및 동창들과 만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았고, 모교 방문 기념품을 총동창회 부스에서 판매하는 아이디어가 좋았다"(윤금진 사범대 회장)는 의견과 "올해의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도 중요하지만 졸업 30주년과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도 우대하면 좋겠다"(정순둘 대학원 회장), "고령의 동창들은 건강상 중간에 일어나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선물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강승주 조형대 회장)는 의견도 있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합창제는 28일 리허설 할 때 본 공연 하듯이 열정적으로 신나게 했는데 그 덕분인지 평가가 매우 좋았다"며 총평을 했고, "재상봉 동창에게 주는 펜던트를 250개 준비했는데도 펜던트가 모자라서, 받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간 동창이 있어서 죄송했다"며 내년에는 넉넉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경희(약학 88) 문화부장이 잘 키운 임파첸스(서양식 봉선화) 덕분에 기념식 무대를 장식한 꽃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꾸밀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상반기 임원회를 마치고, 8월 22일(목) 정기 임원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모교소식

1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5월 31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모교 총장, 장 상·신인령·이배용·김선욱·김혜숙 전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이화국제재단 이사진, 이화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교내외 귀빈과 재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기념식사를 통해 이화의 138년 역사를 '기적과 감사의 역사'로 소개하며 어려움 속에도 이화여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세 명을 소개했다. 먼저 이화학당 제4대 당장으로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역사를 써 내려간 룰루 프라이(Lulu E. Frey) 당장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에서조차 여성에게 대학 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1836년 첫 여자대학이 생겼을 때인데,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불과 24년 만에 대학과가 설치된 것은 프라이 당장의 굳은 신념과 결단 덕분"임을 강조하며 "이화가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하고, 1914년 최초의 여학사를 배출하며,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증받는 역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이화학당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던 김애다 학생을 소개했다. 1928년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한 김애다는 결핵으로 투병 끝에 1931년 숨을 거두었고, 죽기 직전까지 정동의 이화학당이 신촌으로 이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했다. 김 총장은 이화학당 제6대 아펜젤러 당장이 '애다기도실'을 본관 3층에 만들게 된 과정과 함께, 지금도 많은 이화인이 찾는 기도 장소로 소개했다.

세 번째는 한국 대학 가운데는 최초로 1970년 미국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 후, 모교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을 이어온 '이화국제재단'을 소개했다. 제7대 김활란 총장이 '이화의 친구를 만들자'는 모토로 선교사와 미국인 후원자, 동창이 참여하는 '10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재단 설립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했고, 이는 이화여대 세계화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메리 앤 스웬슨(Mary Ann Swenson)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모교 근속 교직원 표창 및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먼저 모교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139명을 대표해 오인숙 부속 이화금란중학교 교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



사, 홍석표 중어중문학과 교수, 유종현 연구윤리센터/산학협력단 과장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한국 심리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업적을 세운 김태련(심리 60) 아이코리아 이사장이자 심리학과 명예교수, 역경을 딛고 기부를 통해 푸르메재단 설립에 기여한 황혜경(사회 88) 동창이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 138년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화합창단의 축가 '이화 피날레'와 이화오케스트라의 축주 〈Polonaise〉 공연이 펼쳐졌으며, 기념식사 중에는 룰루 프라이 당장과 김애다 동창, 그리고 이화 창립 150주년을 준비하는 '역사기록 편찬 사업' 및 '이화 웨스트 캠퍼스'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총장 초청 오찬이 ECC 이삼봉홀에서 열렸다. 행사 참석 귀빈과 이화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오찬에서는 학교발전기금 후원자들에 대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이 진행됐다.

2
현대미술 최고 권위자 프란시스 모리스 초빙석좌교수 특강

조형예술대학(학장 최경실)은 4월 11일(목) 중강당에서 현대미술 최고 권위자 프란시스 모리스(Frances Mary Morris CBE) 초빙석좌교수 특강을 개최했다.

프란시스 모리스 초빙석좌교수는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으로 꼽히는 영국 테이트 모던 최초의 여성 관장으로 부임해 7년간 역임한 후 현재는 명예관장을 맡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이화비전 2030+' 발전전략을 추진 중인 모교는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의 일환으로 올 2월 모리스 교수를 서양화전공과 영상예술협동과정 초빙석좌교수로 영입했다.


프란시스 모리스 초빙석좌교수

모리스 교수는 35년 이상 지속되어 온 테이트 모던의 국제적 컬렉션을 예로 들며 이전까지 서구 유럽 및 북미의 미술과 미술사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복수적 서사를 통해 현재 문화, 특히 시각문화가 시간과 장소 안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펼쳤다. 또한, 미술관이 이러한 국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종, 접근성, 평등은 물론 기후 위기와 같은 시급하고 복합적인 의제를 다루며 어떻게 '생태학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모교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이마프(EMAP · Ewha Media Art Presentation)'의 2024년 좌장을 맡은 모리스 교수는 올 9월에 열릴 이마프 2024의 비전도 소개했다.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로 글로벌 리더들과 좌담회 개최

김은미 모교 총장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UN 주재 미국대사가 4월 16일(화) 이화역사관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번 좌담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내 동맹국 협력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방한 기간 중 한국의 차세대 여성 리더를 만나기 위해 모교 방문을 결정하며 성사됐다.

1886년 한국 최초로 여성교육을 시작한 이화학당의 모습을 복원한 이화역사관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외교계 및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은미 총장은 좌장을 맡아 파이어사이드챗(Fireside Chat) 형식으로 진행된 좌담회를 진행했으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 관련 연설에 이어 모교 재학생 20여 명과의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연설을 통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경고처럼 한 지역의 부정의(不正義)는 세계로 퍼져 나가는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국가가 국경과 자국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시절 파리기후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 양성평등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하며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계속해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김은미 총장, 토머스-그린필드 UN 주재 미국대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왼쪽부터)



4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재판연구원 및 검사 배출 전국 1위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법전원 12기 안소연(24) 동창과 13기 강나희(24), 김소봉(24), 김수정(24), 김지우(24), 김해린(24), 김현진(24), 배유경(24), 소다솔(24), 위희수(24), 이누리(24), 이지은(24), 정혜진(24), 최현진(24) 동창이 '2024년 신임 재판연구원'에 임용됐다. 대법원이 5월 1일(수) 발표한 '202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모교 법전원 출신 임용자는 총 14명으로, 전체 임용 인원 118명의 11.9%에 달한다. 법전원은 2022년 6명, 2023년 11명에 이어 올해 14명으로 최다 재판연구원 임용자를 배출했으며, 누적 통계상으로도 총 77명을 배출하며 국내 로스쿨 TOP 4를 기록했다.

2024년 신임 검사에는 법전원 13기 고지원(24), 권주은(24), 김수빈(24), 김은서(24), 김정은(24), 양희재(24), 정서윤(24), 정유진(24), 정윤선(24), 조은희(24) 동창 등 10명이 임용되며, 국내 법전원 1위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93명의 신규 검사를 임용한 가운데 모교 법전원 졸업생 10명이 포함돼, 전체 합격자 중 10.8%를 차지했다.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_임복희(행정 93)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

3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포스코관 내 사회과학대학 학장실에서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과학대학 차미경(사회 84) 학장, 송호신 부학장 및 사회과학대학 임복희 회장과 각 과 동창회장 김희정(정외 88)·김노미(문정 88)·라현정(심리 91) 동창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이 후원금은 포스코관 건물 내 재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애플라운지(Apple Rounge)'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한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음악대학

회장__정소희(작곡 89)

'2024 이화뮤직페스티벌' 개최

3월 18일(월)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했으며 동창회, 각 과, 선교부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또한 음악대학 동창회 회칙 개정안이 전부 통과되었다. 특별히 2025년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에 관한 동창회와 음대의 사업 계획도 발표되었다.

한편 음악대학 동창회는 '2024 이화뮤직페스티벌'을 6월 3일(월)과 6월 4일(화) 그리고 6월 14일(금)에 개최했다.

6월 3일(월) 공연은 졸업 30주년 동창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김정미(성악 89) 동창의 사회로 박지영(성악 94)·이정자(한음 94)·이주은(관현 94)·정세영(성악 94)·정수연(피아노 94) 동창 등 졸업 30주년 동창들은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아 연주하였다. 30년 전 이화의 아름다웠던 교정과 친구들과의 우정이 담긴 추억의 영상을 보며 '이화'로 다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4일(화) 공연은 각 과 음악회로 구성되었다. 음악대학의 6개 과(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종교음악과, 한국음악과)의 동창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6월 14일(금) 공연은 합창 페스티벌로 구성되었다. 진경진(성악 88) 동창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EMA 콰이어(지휘 최희복, 성악 88),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지휘 이치복, 종음 97), 이화 아르모니아 합창단(지휘 이수연, 성악 92)이 출연했다. 특별히 이화여대에서 발행한 1931년 최초의 합창곡집인 『조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가진 음악대학 동창회

선민요합창곡집』에 실린 〈도라지 타령〉과 함께 안기영의 〈한양의 봄〉, 안기영과 메리 영의 〈이화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경영대학

회장__황진선(경영 90)

이화 경영 60주년 발전기금 모금

경영대학 동창회는 60주년을 맞이하여 환갑의 의미를 새로운 도전, 새 출발로 정하고, 경영대학이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화·신세계관의 경영대학 도서관을 포함, 1층 리뉴얼을 위한 '이화 경영 60주년 발전기금 6억'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시작으로 3월 18일(월) 이화·신세계관 205호에서 경영대학 최초로 선후배가 함께하는 개강 예배를 개최하였다. 최명희(경영 88) 경영대학 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이화의 길'에 대한 장윤재 교목의 말씀을 들었다. 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 여성 교육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헌신한 분들 덕분에 이화가 여성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으며 발전하게 된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었다.

4월 25일(목) 대대적인 모금의 시작을 위해 '함께한 이화 경영 60년, 울고 웃던 그 순간들을 어제와 오늘로 이어 오고, 내일로 계속 이어 나갈 선후배님을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각 기수 대표들을 이대 후문 '필름포럼'으로 초대하였다. 〈뷰티풀 라이프〉라는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박성연(경영 88) 경영대학 학장으로부터 경영대학의 비전을 들으며 후배 양성을 응원하기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8일(토) 10시, 이화교정걷기 행사를 위해 박물관 앞에 모인 동창들은 재학생 후배의 안내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화교정을 걸었다. 행사에 참여한 동창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공사 대금의 50%가 입금되어야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름방학인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골프 행사를 5월 31일(금) 안성의 골프클럽Q에서 진행하였다. 140여 명 36팀이 참가하여, 기부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담긴 투자임을 보여 주었다. 선한 영향력이 이화의 자랑이자 이화 동창의 자긍심임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초롱초롱한 후배들과 함께 '이화 경영 60주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덕분에 봉사와 나눔이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의 빛을 느끼게 되면서, 또 다른 60년의 이화 경영을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다. '아, 그래서 그때 채플 시간에 사회의 빛이 되라 하셨구나' 하고 깨달으며, 후배들로부

경영대학 동창회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경영대학 개강 예배를 개최하였다





이화교정걷기 행사에 참석한 경영대학 동창들

터 오히려 배우는 감동의 시간을 이화 경영의 선배들은 갖게 되었고, 이제 5억 넘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있다.

의과대학

회장__임선영(의학 82)

제58차 정기총회 개최

3월 9일(토) 서울 명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59명의 동창이 모여 학술 심포지움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심기남(의학 92)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학술상 수상자 강의가 있었고, 임선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동창들의 열정에 감사하고 현재의 의료 난관도 함께 이겨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최영아(의학 95) 동창의 메리 스크랜튼 상 수상, 금봉숙(의학 74) 동창의 '영원한 이화인', 윤하나(의학 94) 이대서울병원 교수의 '올해의 이화인' 추대도 있었다. 또한 이현숙(의학 64) 동창의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 수상에 이어 65명의 의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이번 총회는 12회 곽영신(의학 63) 동창부터 재학중인 학생까지 함께하여 선후배 간의 풍성하고 돈독한 만남의 향연이 되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약학대학

회장__황미경(약학 86)

제41회 약학대학 화합의 날 행사

4월 23일(화) 오전 11시 서울대공원 다람쥐 광장에서 제41회 약학대학 화합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황미경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호젓한 공간에서 폭 넓은 기수의 약대 동창들이 즐거운 만남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졸업 30주년 동창들이 안내를 맡아 주었고, 40주년 동창들이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였으며, 임원과 동창들이 다양한 선물을 협찬하여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국제대회에서 라인댄스로 입상한 바 있는 유기연(약학 89) 임원의 지도로 라인댄스를 배우며 흥을 돋우었고, 약학 26기(제약 5기, 1975년 졸업)가 장기자랑 대상을 수상하였다.

5월 31일(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기증특별전 '아름다움을 전하다'가 진행되었다. 김춘자(약학 63) 동창과 남편 이세민(서울대 약대) 부부는 서울 성동구에서 42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틈틈이 고미술을 공부하고, 문화재학과에서 감정학을 이수하며 안목을 키워 왔는데, 세계 100여 개국을 여행하며 수집한 114건 121점의 유물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김춘자 동창 부부가 기증한



약학대학 화합의 날 행사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유물은 고려 청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탁잔, 접시, 정병, 유병, 매병 등을 비롯하여 조선 백자 양이잔, 청화백자 십장생 문발 등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집품들이 대부분이다. 김춘자 동창은 "그간 고미술품을 배우고 수집하며 소장의 기쁨을 누렸지만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행복과 선현들의 지혜를 나누고 싶어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유물이 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장남원(중문 85) 박물관관장은 "친구처럼 때론 동지처럼 살아오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전시와 연구에 활용뿐 아니라 잘 보존하고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열린 기증식에는 김은미 총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곽혜선(정외 84) 약학대학 학장과 약학대학 동창회 임원 및 다수의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_우미형(의직 77)

ECC극장에서 홈커밍데이 행사

3월 21일(목) 오전 11시 아령당에서 생활환경대학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우미형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숙희(가정 60) 명예교수의 격려사와 2023년 동창회 활동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2024년 동창회 사업계획, 각 과 활동보고와 아령회 합창단 축하공연이 있었다.

생활환경대학 동창회(아령회)에서는 2024년 홈커밍데이 행사와 봄 야유회, 가을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사업 계획을 동창들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4월 25일(목) 생활환경대학의 봄 야유회에 참가하여 강원도 고성에 있는 바우지움조각미술관과 아르떼뮤지엄 강릉을 다녀왔다. 참석한 52명의 동창은 복합문화공간인 바우지움조각미술관에서 김명숙(조소 74) 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 속에서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여유로움을 즐겼다. 이후 아르떼뮤지엄 강릉으로 이동하여 몰입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관람하며 알찬 하루를 보냈다.

5월 31일(금) ECC극장에서 9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아령회 홈커밍데이 행사 '우리는 하나! 아령인은 하나!'를 개최하였다.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네덜란드에서 온 송창주(가정 62)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관장 내외를 비롯해 김숙희 교수와 식영과 60년 졸업 선배, 가정관리과·식영과·의직과 졸업 50주년 동창과 졸업 30주년 동창이 참석해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 오광석 성악가 초청 공연과 아령회 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져 더욱 격조 높은 행사가 되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 __ 현혜경(76)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추대

5월 10일(금)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70여 명의 동창이 모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혜경 동창이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2년 동안 수고한 김경희(81) 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학위수여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동창회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뒤, 교정에서 각 기수 별로 촬영하는 동안 재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동창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어국문학과 동창들



영어영문학과

회장 __ 정경숙(79)

영학회 신년 인사 모임

2월 22일(목) 영학회는 10명의 전임 회장들을 초청하여 신년 인사를 하고, 2025년 영어영문학과 100주년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5월 17일(금) 1963년 졸업 동창부터 2001년 졸업 동창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창 190여 명을 초청하여, 모교 교정 투어와 점심식사, 그리고 영학회 춘계강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동창들은 학부 재학생의 안내로 학관 등 아름다운 모교 교정을 둘러보고, '자연솜씨'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학관 내 고려아연관에서 이어진 영학회 춘계강좌는 '국립중앙박물관+이화여대 학관 건축 나들이'라는 주제로 김명준 dmp건축 운영총괄사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영학회 정기총회에서는 2022~2024 감사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정경숙 동창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영문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시상 및 2025년 영어영문학과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5월 31일(금)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빛나는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동창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수상을 축하하였다.

역대 전임 회장들을 초청하여 신년 인사를 나눈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불어불문학과

회장__ 송기정(80)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나눔

4월 17일(수) ECC극장에서 아미회 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1기 김희손·장현정(61) 동창부터 64기까지 모여 60여 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불문과 동창회 소식과 아미회 장학금 전달 후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인 송기정 회장의 특강 〈역사의 소용돌이, 문학을 말하다, 나폴레옹 이야기〉로 이어졌다. 동창들은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들으며 열정이 가득했던 학창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아미회 총회를 마치고는 꽃이 만발한 모교 교정을 두루 돌아보며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아미회 총회를 가진 불어불문학과 동창회

독어독문학과

회장__ 박지나(90)

기 간사회 모임

3월 28일 (목) 호텔 나루 서울 – 엠갤러리의 레스토랑 부아쟁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기간사회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동창회장단에 대한 소개, 동창회칙 수정에 대한 토의 및 동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제2기 남재은(68) 간사의 동창회 격려 후원금 전달도 있었다.



'8090 동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4월 29일(월) 로얄라운지 레스토랑에서 '독문과 8090 동문의 밤' 행사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대학생활을 한 80년대~90년대 학번 선후배 및 동기들이 오랜만에 같은 자리에 모여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격려도 하고 친목을 다지는 동창 모임이었다.

기독교학과

회장__ 한은주(87)

임원회에서 사업계획 논의

3월 15일(금) 2024년에 새롭게 구성된 임원회를 모교 미관에서 진행하였다. 2년간 수고한 김미희(86) 전 회장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올 한해 사업계획

후배들이 사용 중인 과방을 방문한 기독교학과 동창들



을 의논하고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학과 학과장도 참석하여 학과의 소식과 함께 재학생들을 위한 동창회의 협조 사항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임원회 후에는 리모델링된 학관을 함께 둘러보며 40년 전 학관에 대한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후배들이 사용하고 있는 과방을 방문하여 준비해 간 음료수와 간식으로 냉장고를 채워줄 수 있었음에 더욱 행복한 하루였다.

사학과

회장__ 최유리(84)

여주로 봄 정기답사

3월 28일(목) 서울 인사동 뉘조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2024년 중점 활동 목표 및 동창 활동 소식의 확산을 위한 네이버 카페 개설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 25일(목) 인사동 뉘조에서 열린 간사회에서는 선후배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 기획과 사학과 후원계좌를 통한 발전기금 활성화, 봄 답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월 9일(목) 경기도 여주로 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지는 여주에 있는 송시열의 사당인 대로사(大老祠)와 고달사지(高達寺址)였다. 답사를 마친 후

여주로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이혜옥(74) 고문의 초대로 양평 자택을 방문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정치외교학과

회장__ 김희정(88)

제25대 이정회 회장 취임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이하 이정회)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외교학과 학과장 조무형 교수 및 고민희(영문 04) 교수, 이양준(70) 상임고문, 신은영(86)·황혜경(87)·이혜경(88) 전 회장 등 내빈 7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 2024년 이정회 사업 계획안 보고 및 승인, 제25대 이정회 회장의 취임 및 취임사, 회칙 개정, 신임 회장단 및 임원진 소개, 교가제창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 신입 동창 환영식이 이어졌다.

이날 취임한 김희정(여성소비자신문 대표) 회장은 "올해는 정치외교학과 창립 74주년이자 이정회 창립 57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정회는 그동안 모교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정외과 동창 명의로 나가는 장학금이 11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외교학과는 오영주(8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8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배출했으며, 후배들 중에서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두 명이 합격한 가운데 한 명이 수석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 두 명, 현직 시의원 한 명, 도의원과 정부 기관장, 기업체 임원과 기업 대표, 예술가, 언론인, 시민단체장 등 수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했다"며 "이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문을 가르쳐 주신 덕분이기도 하며,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경력과 실력을 연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식을 개최한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마한 동창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이정회는 더욱 많은 후배님들이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리더로서의 길을 좇는 것을 응원하겠다"고 밝힌 김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후배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 드리고,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다"며 "전통을 이어받고 혁신에 귀 기울이는 25대 이정회 임원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헌정보학과

회장__ 김노미(88)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5월 25일(토) 압구정 오미가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1960년도에 입학한 동창들부터 2019년도에 입학한 신입 동창까지 40명 가까이 참석하였으며, 21명의 신입 동창을 대표해 19학번 최민교(24) 동창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문헌정보학과 동창들



회계결산보고와 예산안, 심의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동창회와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써준 전방자(64)·최정자(64) 동창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좋은 일을 맞은 동창들을 축하하는 순서에서는 수상, 승진, 출간, 영예로운 정년퇴임 등 다양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따뜻한 식사와 맛있는 디저트, 오고 가는 풍성한 대화로 총회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총회를 준비한 임원들, 문정 동창회의 구심점이 되어 활동해 주는 기 간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회학과

회장__ 조성남(77)

제32회 GASI(국제지구촌학회) 개최

사회학과 동창회(GASI 한국지부)는 제32회 GASI(Global Awareness Society International:국제지구촌학회) 총회 및 세미나를 5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사흘간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개최하였다. GASI 총회 및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와 글로벌 발전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나누는 국제적 행사로 약 20여 개국의 국제회원을 포함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1991년 GASI의 설립과 함께 창설된 한국지부는 공정자(62) 전 회장에 이어 현재 오숙영(77) 회장, 김자혜(74) 이사장이 이대 사회학과와 함께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은미(81) 총장이 뜻깊은 환영사



사회학과 동창회는 모교에서 국제지구촌학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창의 날 합창제에 참여한 사회복지학과 동창들

와 키노트 스피치를 하여 각국에서 참여한 교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조성남(77)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한국의 대표 패널로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학회가 끝난 후 25명의 외국인 회원들과 임진각, 설악산, 전주 등 '8일간의 우리나라의 역사 기행 투어'를 함께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모두의 기억에 남을 행사로 마무리했다.

GASI는 노창섭 전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에서 부인인 김명자(62) 동창과 10만 달러의 기금을 바탕으로 설립한 가족재단을 기반으로 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이익금을 이화국제재단을 통하여 이화여대로 보내고 있다. 2022년 기부금(미화 1만 달러)을 보내온 것을 시작으로 이번 한국학회 기간에도 미화 5,000달러를 추가로 기부하였다. 이에 사회학과 동창회에서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 김정진(80)

동창의 날 합창제 참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동창의 날 기념식 합창제에 사회과학대학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8기부터 55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선후배 28명이 모였다. 4월부터 월 2회씩 모여 연습하며 선후배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즐겁게 준비하였다. 동창의 날 당일 무대에 올라 합창을 통해 수많은 동창들과 교감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수학과

회장__ 문 온(87)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개최

5월 16일(목)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1973년 졸업 동창부터 2024년 신입 동창까지 약 70명의 선후배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5년 만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정기총회에 참석한 수학과 동창들



정기총회는 사회를 맡은 김진희(87) 총무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 모인 우리〉 제창과 오혜경(87) 선교부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문 온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 학과장 이준엽 교수의 학과 소식과 교수들 수상 소식, 신임 김민훈 교수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문 온 회장의 동창회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이 경(87) 회계의 회계보고, 권오향(78) 감사의 감사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창회 장학금 지급 인원 확대에 대한 안건과 '녹수회(전 수학과 동창회장 모임)'를 동창회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안건이 동창들의 동의와 제청 속에서 처리되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 되었고, 2부 행사는 신입 동창 환영회로 진행되었다. 김혜빈(24) 신입 동창의 환영 답사와 기념품 전달식 후, 수학과 동창회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공연과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화목을 다졌다.

생명과학과

회장__ 박미향(89)

제3회 이화 바이오 브리지 출범

4월 30일(화), 종합과학관 B동에서 '제3회 이화 바이오 브리지(Ewha Bio Bridge, 이하 EBB)' 출범식이 열렸다. EBB는 생명과학과 졸업생 멘토와 재학생 멘티를 이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생명과학을 뜻하는 '바이오(Bio)'와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미의 '브리지(Bridge)'를 이름에 담았다.

EBB는 지난해까지 이화 바이오 프로페셔널(Ewha Bio Professional, EBP)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브리지'로 명칭을 바꾸고 선후배 간의 '연결'을 더 강조했다. 제3회 EBB는 총 54명, 졸업생 21명과 생명과학과 3, 4학년 재학생 33명이 모여 네



제3회 EBB 출범식에 참석한 생명과학과 동창들

트워크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두 배 정도 규모가 커졌다.

멘토 10명과 멘티 33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6대 생명과학과 학생회 '바이올로쥐'의 인사로 출범식의 문을 열었다. 행사는 ▲EBB 활동 내용 안내 ▲3기 멘토 소개 ▲EBB 수료 조건 안내 ▲멘토-멘티 배정 결과 발표 ▲멘토-멘티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첫 공식 멘토링 프로그램은 5월 18일(토)부터 시작한다. 온라인으로 졸업생들의 커리어 이야기를 듣는 '멘토링 세미나'가 이날부터 열리고, 이와 별개로 매칭된 멘토-멘티들은 수시로 연락해 오프라인에서 만날 예정이다. 모든 활동을 마치면 올해 11월, 수료식을 열고 우수 멘토, 우수 멘티 수상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후원도 생겨, 생명과학과 동창회인 '이생회'와 생물학과 발전 기금 중 일부가 제3회 EBB에 사용될 예정이다.

피아노과

회장__ 문주원(88)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3월 18일(월)에 음악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열려 윤금희(66) 명예교수를 비롯 동창회 임원과 동창들이 참석했다. 이날 '올해의 이화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피아노과 동창들

인' 장학생으로 4학년 민준아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음악과

회장__ 홍주희(90)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5월 20일(월) 오후 7시 음악대학 김영의 홀에서 한국음악과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곽은아(한음 85, 현 음악대학 학장) 총동창회 부회장, 정소희(작곡 89) 음악대학 동창회장을 비롯 음악대학의 각 학과 동창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음악회는 한국음악과의 명예교수와 현 교수진, 동창 200여 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고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다. 또한 김은미(사회 81) 총장을 비롯한 국립국악원, 타 대학 국악과의 교수진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과 화분이 김영의 홀 로비를 가득 메워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홍주희 회장은 "동문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동창회 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였고, 곽은아 음대 학장님을 비롯한 한국음악과 교수님들과 동창들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음악회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를 통해 한국음악과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뜻깊은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음악과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모습



동양화과

회장__ 김지연(93)

메이데이전 오픈 축하

3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녹미회가 '비전 이화미술인' 전을 개최하였다. '비전 이화미술인' 전은 각 과에서 선발된 졸업생들의 전시이며 동양화과에서는 임수민(24) 동창이 선발되어 전시에 참가하였다.

한편 조형예술대학 3학년 학생들의 작품전인 '메이데이전'이 5월 21일(화)부터 조형예술관 A동 2층에서 열렸다. 오픈식에는 김보희(74) 명예교수와 동창회 임원 등이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함께 축하

메이데이전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축하한 동양화과 동창회



의 자리를 가졌다.

서양화과

회장__ 송은주(86)

동창회 역대 회장들과의 만남

3월 4일(월) 그동안 서양화과를 이끌어 온 역대 동창회장들과 동창회 임원들과의 만남이 서울 인사동에서 이루어졌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진행하는 서양화과 동창전인 이서회와 6월 13일(목)에 예정 중인 야유회 장소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진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서양화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후배들의 이서회 영입, 연중 행사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서양화과 중요한 행사와 내용을 논의하였다. 야유회 장소로 선배이자 스승인 한진수(49) 교수의 미술관이 결정되어, 강화에서 후배들과 유대감 있는 따뜻한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역대 회장인 천연순(62)·곽연(67)·이서희(68)·강승애(72)·김효정(77)·차명임(82)·조기련(83)·채정수(83) 동창과 동창회 임원인 박수경(86)·백다임(86)·송은주(86)·박은덕(89)·박경원(90)·이윤정(90)·나인하(91)·주영신(96)·박혜성(98)·이동은(98) 동창이 참석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뉴욕 이서회 전시회를 이끈 이윤정 동창은 역대 회장단과의 만남을 위해 뉴욕에서 먼 길을 달려왔다.

역대 동창회장들과 만남을 가진 서양화과 동창회 임원들



조소과

회장__ 오주연(90)

이화조각회 신입 회원 심사

2024년도 ESAarts Award는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들이 기획하고 학부와 대학원 재학 중에 있는 후배들이 참여한 전시로, 그동안 동창회에서 바라는 선후배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좋은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3월 1일(금)부터 14일(목)까지 '따뜻한 손, 시원한 바람'이라는 주제로 온수공간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자로 김보경(19)·김진선(19) 동창이 참여하였고, 도정윤(24)·안세진(24)·이서원(24)·최승연(24) 동창과 강서우(대학원)·나하윤(학부)·이사빈(학부)·주형지(학부) 재학생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3월 9일(토) 아선재에서 2024년도 2차 조소과 동창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오주연 회장, 이정자(66)·이종희(71)·황지선(74)·심부섭(76)·고혜숙(77)·김연(91)·김양선(94)·박은선(98) 동창이 참석하여 이화조각회 신입 회원 심사 및 회원 정리, 이화조각회 정기전 준비라는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화조각회 신입 회원 심사로 5명의 회원이 들어오게 되었다.

3월 16일(토) 2시 30분 헬렌-A Gallery에서 2024년도 3차 조소과 동창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오주연 회장과 고혜숙·최은경(79)·김 연·김양선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40회 이화조각회 정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회 임원들



전 준비 및 예산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1일(일)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임원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역대 이화조각회 자료 수집 등 뜻깊고 의미 있는 전시로 만들기 위한 세부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제40회 이화조각회 정기전은 6월 4일(화)부터 15일(토)까지 '불멸(不惑) ; 직업으로서의 조각가' 라는 주제로 모교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024 메이데이 전시에서 조소과 학생들의 전시가 '입체(立體)' 라는 주제로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동창회 임원인 오주연 회장과 강승주(87) 녹미회장, 박은선 총무, 이은이(92) 홍보는 5월 21일(화) 메이데이 오프닝에 참석하여 후배들의 전시를 응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5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로 예정된 메이데이 전시는 6월 2일(일)까지 연장해 진행되었다.

섬유예술과

회장__ 이상영(94)

'예미의 봄, 예미 파티'

봄기운 가득한 3월 28일(목) 오후12시 섬유예술학과 동창 총회(예미 총회)가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있었다. 2024년 총회는 연령대별 동창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주제를 '예미의 봄, 예미 파티'로 정하고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파티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예미 동창회에서는 드레스코드(화사한 핑크), 포토존, 베스트 드레서상, 럭키드로우,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예미의 봄, 예미 파티'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핑크로 더욱더 화사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도, 예미 활동 영상 상영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블루 써니(조형대 공연팀) 공연으로 한층 더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동창들은 포토존에서 추억을 담으며 즐거워하였다. 또한 럭키 드로우를 통해 모든 동창들이 선물을 받았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작은 선물과 핑크 꽃 한 송이가 손에 들려졌다.

이번 총회는 1966년 졸업한 오복환 동창부터 2024년 졸업한 김성현 동창, 그리고 2024년 하기 졸업 예정인 예비 예미인들까지 세대를 아우른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섬유예술학과의 전통을 잇고 즐거운 추억과 소통 및 교류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전공

회장__ 하승연(94)

'이화, 기억하다' 전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화 패션 브랜드 'E:FEEL'이 이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며 '이화, 기억하다' 전시를 5월 20일(월)부터 6월 20일(목)까지 김옥길기념관 2층에서 열었다.



창립 138주년 기념 전시
'이화, 기억하다'

도예과

회장__ 한주원(89)

제44회 도림전

4월 11일(목) 이화아트센터에서 제44회 도림전 'EDITION LIMITEE'가 개최되었다. 따사로운 봄날 열린 이 행사는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감사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선보였다. 오프닝에서는 자선 목적의 래플 행사가 진행되었다. 많은 동창이 기부에 참여했고 추첨을 통해 기부된 작품이 참여자에게 돌아갔다.



제44회 도림전에 참석한 도예과 동창들

무용과

회장__ 한명옥(79)

8기·28기 동창 만남 행사

무용과의 27기인 89학번(1993년 졸업) 동기들로 구성된 '팔구27 Collective'는 3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서울 창무 포스트극장에서 동창 무용가들의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는 공연 〈댄스 커렌트(Dance current) 이화〉를 개최했다. 이 공연은 지난해 무용과 창립 60주년을 맞아 졸업 30주년(89학번) 동창들이 개최한 '이대 팔구27 Collective – 함께 걷는 길 동행'을 계기로 시작된 기획이며, 올해 〈댄스 커렌트 이화〉로 출범하여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공연 수익금은 동창 무용가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댄스 커렌트 이화〉에 참석한 무용과 동창들

올해 첫 무대에는 모교 무용과 교수를 역임한 원로 무용가 김매자(체육 66) 동창을 비롯해 한혜경(74)·남정호(75, 전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조윤라(77, 한국발레연구학회 이사장)·이미영(86, 국민대학 교수)·이윤경(86, 서울종합예술대 교수)·최지연(88, 창무회 예술감독)·박소정(92, 한국 펠든크라이스 대표)·정정아(93)·김정은(99) 동창 등 10명의 동창 무용가가 각자의 작품을 선보였다.

5월 31일(금) 오전 11시, 동창의 날 행사에 앞서 무용관(토머스홀)에서 '무용과 8기(1974년 졸업)와 28기(1994년 졸업)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20년의 차이를 넘어 무용과 동창이자 예술계 선후배들이 화합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무용과 동창회 주요행사 안내 및 보고도 이뤄졌다.

국제사무학과

회장__ 고현주(90)

유튜브 라이브로 정기총회 실시간 송출

4월 20일(토)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동창들과 국제사무학과 교수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되어 동창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국제사무학과 동창들

정기총회는 22대 고현주 회장의 개회사와 백지연(94) 호크마교양대학장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또한, 36년 전 국제사무학과 내에 창립된 크리스천 모임인 '마라나타'가 현재 국제 기독 학생들의 모임으로 성장하여, 이 모임에서 활동 중이며 박사 과정에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프리스카 동창의 찬양이 이어졌다. 지난 1년간의 국제사무학과 동창회 활동 소식에서는 10대 뉴스가 전해졌다. 주기적인 연례행사 외에 새로 시행된 사업 내용들로는 70세 이상 동창들의 회비 면제, 동창회원들의 자율적 회비 납부 전환, 회비 납부자와 기부자 및 기 대표들에게 연말 동창회 기념품 발송, 연중 국제사무학과 근조기 발송과 함께 젊은 세대 국제사무학과 동창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경하기 발송을 위한 제작과 동창들의 시안 투표, 전체 동창 카톡방과 기수 대표방 재개설 및 재정비, 평상시 소통 강화를 위한 동창 초대 이벤트와 상세한 안내와 공지를 통한 동창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 윤혜정(99) 학과장과 재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이화로 만난 사이' 국제사무학과 홍보 영상 및 프로그램 촬영, 신산업융합대학 Research Festival 진행, 피플데이터분석가 트랙 신설 및 활성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턴십 진행 및 장학생 선발, 커리어데이 등의 학과 소식도 전하였다. 또한 고현주 회장은 우수 재학생 2명에게 동창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고, 신입 동창들을 소개하며 환영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Ewha West Campus(EWC) 건립에 대한 동영상과 기금 안내도 있었다.

오찬에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4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유현주(95) 동창과 고현주 회장의 〈유현주 온 더 블록〉이란 인터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4D Food Printing'과 관련된 푸드테크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이해, 이번 혁신상 수상의 의미, 유 동창의 개인적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간증이 이어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 순서로, 레크레이션과 함께 동창회가 준비한 다양한 경품 추첨(1등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이 있었고, 단체 사진 촬영, 교가 제창으로 정기총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가정관리학과

회장__박응임(86)

펀드회원과 만찬 모임

4월 26일(금)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 시스트로에서 동창회 임원과 펀드회원 만찬 모임이 있었다. 1972년 졸업한 곽인숙·조원숙 동창을 비롯해 1992년 졸업한 후배까지 15명의 동창이 함께하였다. 가정관리학과의 숨겨진 역사와 동창회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만찬 모임에 참석한 가정관리학과 동창회 임원들과 펀드회원들



지회소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조혜진(장미 89)

Giving Thanks 음악회

2월 29일(목)부터 3월 1일(금)까지 샬롬 장애인 선교회, 벌몬 양로센터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였다. 이어 3월 2일(토)에는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음악대학을 위한 Giving Thanks의 첫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모교에서 곽은아(한음 85) 음악대학 학장과 배일환 교수, 연주자 박혜온(한음 09)·김경헌(한음 17) 동창이 와주었고, 현지 동창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승경(관현 99)·이경하(관현 02)·이나래(관현 03)·박보아(관현 08) 동창, 피아니스트 주희정(피아노 08) 동창과 김종숙(성악 00)·김향란(한음 11) 동창 모두 11명의 음악가들이 모여 양악과 국악의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콘서트 중에 이화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과 이화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영상도 함께 상영되었다. 동창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및 지역 주민도 많이 참석하여 이화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4월 1일(월)에는 한의사 남궁봉일(체육 81) 동창의 공진단 클래스가 김주경(관현 77) 동창의 집에서 열렸다. 여러 동창이 모여 직접 공진단을 만들어 가져갔고, 그 수익금은 동창회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음악회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뉴욕 지회

회장 __ 김영신(독문 88)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룹 투어

4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뉴욕 One Art Space Gallery에서 녹미회 26회 전시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Blossom'이라는 주제 아래 21명의 녹미회 동창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동창 아티스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예술혼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

4월 9일(화) 동창 25명이 모여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룹 투어를 진행했다. 한 시간 동안 한국어 도슨트 박영경(국제사무 92) 동창의 안내로 주요 작품들

바비큐와 옥션, 나눔 바자를 즐기며 친목을 다진 뉴욕 지회 동창들



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원 제한이 있어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는데, 공지 후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어, 이화 동창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4월 11일(목) 이해경(음악 50)·장혜원(약학 50) 동창의 95세 생일을 축하하는 따뜻한 모임이 열렸다. 특히, 이번 모임은 전 회장단(최성남·약학 70)의 정성스러운 준비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뉴욕 지회의 역사를 빛내준 두 동창에게 동창들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5월 25일(토), The Saint Andrews Golf Club에서 'BBQ & Silent Auction' 행사가 열렸다. 11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초록의 그린을 배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창들은 바비큐와 옥션, 나눔 바자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동창들의 기부 물품으로 진행된 옥션과 바자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모금된 수익금은 2030세대 동창들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동창회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 지회

회장 __ 황순자(교육 69)

70년 삶을 회고한 동창의 책과 함께한 독서 모임

2월 16일(금) 11시 30분 계룡스파텔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지배인의 배려로 넓은 룸으로 안내되어 민계숙(불문 74) 동창의 산문집 『감사의 노래』 출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최경애(영문 80) 동창의 진행으로 참석한 13인이 독후 소회를 나누었다. 이 독서 모임을 위해 민 동창으로부터 사전에 도서를 기증받아 참석자 대부분이 읽고 온 터였다. 민 동창은 코로나19 시대에 질식할 거 같이 움츠리다가 문득 바쁜 일상에서 놓친 기억들을 회상하고, 그 기억의 조각들을 부모님과의 추억, 성경 주제들, 문학과 예술, 사회적 문제들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글쓰기는 단조로운 일상의 돌파구였고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한다. 참석자 대부분이 비슷한 세대여서 특히 유년기의 부모님과의 추억에 강한 공감을 하며 친밀감이 형성되어 뜻깊은 동창 모임이 되었다. 진행을 맡은 최 동창의 갈피마다 적은 깨알 메모는 참석자들에게 경탄을 자아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한 대전 지회 동창들



보스턴 지회

회장 __ 공정원(영문 83)

여성 인재들을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

보스턴 지회는 'Ewha Boston in STEM' 세미나를 준비하고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관심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뛰어난 여성 인재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하기 위한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이다. 미국 보스턴 지회는 동창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글로벌 리더로 발



보스턴 지회는 'Ewha STEM in Bost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전해 나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려 한다. 세미나는 6월 21일(금)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줌(Zoom)으로 개최되었다(QR code 사전등록).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이영완(정외 81)

60년 전 북가주 지회의 태동

북가주 지회는 2024년 6월로 발족한 지 60년을 맞이했다. 이에 초창기 멤버인 박옥희(약학 51) 동창이 축하 글을 보내 왔다.

〈1964년경 한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국을 지상천국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이민 생활은 문화의 큰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과 불안, 그리고 공부의 어려움 때문에 지상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외롭고 그립고 허전한 감정에 싸여 있었습니다.

1963년에 학업을 마치고 텍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이규화(체육 62) 후배를 만났습니다. 또 이곳 동창들의 소식을 들으니 마치 광야에서 친구를 만난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명재(가정 48) 선배님이 베풀어 주시는 후배 사랑의 마음과 실천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가끔 맛있는 음식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기회는 진실로 지상 낙원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대화,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랑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좋은 만남의 기회를 동창회로 발족시키자는 말이 모일 때마다 나왔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64년 5월에 모인 모임에서 구체화되어 다음 달인 1964년 6월에 발기인들의 수고로 샌프란시스코 지회 동창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024년은 환갑입니다. 60년 동안 동창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환갑이 되는 이 동창회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 감사하고 기쁩니다.〉



1964년 발족 당시의 북가주 지회 동창들

순천 지회

회장 __ 유종희(사학 75)

동창의 작업실 방문 겸 나들이

5월 14일(화) 남원에 거주하는 이나경(서양 77) 동창의 작업실을 방문하였다. 이나경 동창은 작은 폐교를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회화, 염색 작업, 한복 제작 등의 창작 활동을 하고, 순천, 여수 등지의 갤러리에서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동창들의 남원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모두가 반기는 나들이였다. 순천 지회는 그림을 좋아하는 동창들이 여럿 있어 이런 모임에 즐겁게 참석하고 있다. 근처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서양 84) 관장

남원으로 동창의 작업실을 방문한 순천 지회 동창들



도 이대 동창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동창들은 미술 애호가가 되어가고 있다.

봄이 한창이라 남원으로 오고 가는 길에 온갖 풍경을 보는 즐거움이 컸다. 도착하여 작업 중인 그림들도 감상하고, 옛 학교 운동장 옆 밭에 한껏 피어 있는 작약밭을 걸어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준비해 온 맛난 도시락을 먹고 다시 오자고 서로에게 인사한 후 순천으로 출발하였다.

시애틀 지회

회장 __ 이재경(수교 80)

지회 소식지 발간

3월 2일(토) 이화 시애틀 지회 소식지가 발간되었다. 총 12페이지로 구성된 소식지는 이재경 회장과 이순덕(수학 76입)·김성은(생미 05) 동창의 수고로 편집되어 100여 명의 동창에게 온라인으로 배포되었다.

고 박미경(국문 71) 동창의 천국 환송 예배 때 몇몇 동창이 뜻을 모아 UW(University of Washinton State) 한국학센터에 고 박미경 동창의 이름으로 1,05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또 UW의 한국학 박사과정 개설을 위하여 거액을 기부한 기부자를 축하해 주었다.

박명호(정외 78) 동창은 4월 12일(금) Newport Way Library에서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 관한 음악 강의를 열었다. 쇼팽의 음악 감상과 함께 진행된 강의는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흥미진진하였다. 무료로 진행되는 강의에 참석자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했으며, 이 성금은 가을 강의에서 모은 것과 함께 한인 Emergency Fund에 기탁될 예정이다.

음악 강의를 듣고 있는 시애틀 지회 동창들



4월 19일(금)에 Tahoma Trail 하이킹을 하였다. Mt. 레이니어, Mt. 애덤스, Mt. 헬렌이 360도로 함께 보이는 Brun's Snowbowl Hut에 도착하여, 멋진 산장에서 떡라면을 먹으며 서로 무사히 완주한 등정을 축하해 주었다. 김영연(교육 79) 동창이 집을 뒤풀이 장소로 제공하여 회상의 시간을 잘 갖고 귀가하였다.

6월 1일(토) 시애틀 베나로야홀에서 김유진(성악 95)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워싱턴주 음악협회(KMA)의 '제44회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노스웨스트 소년합창단이 출연해 빼어난 화음으로 한국 가곡을 한국어로 불렀고, 2021년 Grand Finals Winner of the Metropolitan Opera 최종 우승자인 Duke Kim, UW 성악박사인 소프라노 김유진 동창 등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음악의 밤을 수놓았다.

영국 지회

회장 __ 홍시내(커미부 02)

대영박물관 내 이슬람 갤러리 관람

3월 8일(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동창 13명이 대영박물관 내 이슬람 갤러리에서 만났다. SOAS에서 이슬람 미술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김인성(영문 80) 동창의 설명을 듣다 보니 90분이 훌쩍 지나갔다.

동서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오래전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이곳, 이슬람 갤러리의 경덕진 청화백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



대영박물관 이슬림갤러리를 관람한 영국 지회 동창들



특강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국의 백자가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 전해진 뒤 이슬람 문화권(서아시아)에서 많이 쓰이던 코발트 안료와 만나 청화백자가 탄생한 것! 동물이나 인물의 재현은 알라의 특권이기 때문에 보통 아랍어 서예, 기하학, 식물, 자연 경치 등이 장식으로 등장한다는 점, 조선의 '사농공상'과 달리,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도 메카의 상인이었을 만큼 상인의 지위가 높다는 점, 메카를 향해 기도를 다섯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이나 나침반 관련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 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웠다.

근처 한식당에서 이어진 저녁 자리에선, 사는 이야기, 영국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헤어지기 아쉬웠던 7명은 식당 지하의 노래방으로 향했는데, 신곡을 몰라 노래 대신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 옥스퍼드에 배 타러 가기로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이지은(불문 96)

특강을 통한 배움과 친목의 시간

4월 20일(토) 최선영(섬예 79) 동창을 특별 강사로 초빙하여 '웰빙 인테리어와 정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주최하였다. 지회 사회봉사부장인 이윤진(불문 94) 동창의 집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약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단정하고 깔끔한 집을 위한 알찬 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새 동창들의 소개와 환영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점심 식사와 다과의 시간을 통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8일(토) 버지니아에 위치한 Lake Fairfax 공원에서 '봄 야유회'를 가졌다. 봄비가 올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4명의 동창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였으며,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교가 제창, 자기 소개의 시간, 이영은(국제사무 01) 부회장의 하반기 동창회 행사 안내로 1부 시간을 마쳤다. 이도실(영문 60) 동창의 식사 기도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게임 시간에는 재치 넘치는 문화부장 허혜온(관현 94) 동창의 활약으로 동창 모두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을 마친 후, 김성혜(융합보건 88) 이사장의 2025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관련 안내 말씀과 이지은 회장의 마무리 인사로 피크닉을 끝마쳤다.

이탈리아 지회

회장 __ 박창성(식영 71)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견학

이탈리아 지회는 4월 30일(화)에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로마에 소재한 유엔기구인 세계식량 농업기구(FAO)의 본부를 방문한 것이다. FAO



FAO를 방문한 이탈리아 지회 동창들

에서 다년간 근무 중인 최명신(약학 94) 동창의 초대로 5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최명신 동창은 FAO에서 현재 '식품규격담당관'을 맡고 있다.

FAO 본부의 건물은 그야말로 고대 로마의 유적지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전차 경기장(Circo Massimo)이 건너편에, 카라칼라(Caracalla) 욕장은 옆에 있었고,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유적지는 지척에 있었으며,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의 돔도 내다 보였다. 동창들은 직원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당 테라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주변의 로마 유적지를 높은 곳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최명신 동창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가축 사육, 수산 양식에서 항생제가 남용되면서 결국 인류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인류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이화인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인천 지회

회장 __ 김자영(교육 82)

강화도로 봄 나들이

5월 23일(목) 동창 16명이 강화도로 봄 나들이를 떠났다. 동창들 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강화도 옆 작은 섬 동검도에 있는 예술극장 DRFA365에서 멋진 풍경과 음악이 어우러진 '라벤더의 여인들'을 감상하고, 넓게 펼쳐진 갯벌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였다. 이후, 예배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채플 갤러리를 들른 후, 데이지꽃이 흐드러진 마호가니 카페에 들러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봄 나들이를 통해 동창들은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을 감상하며 감성을 채우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4명의 동창이 차량 봉사를 해준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봄 나들이를 떠난 인천 지회 동창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_ 서석영(정외 94)

온라인 강의와 세미나 및 봄 바비큐 모임 개최

3월 27일(수) 'The Elector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창들과 직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멘토링을 위한 '커리어톡(Career Talk)'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첫 세미나 발표에 Data Analyst 장혜주(영교 01) 동창과 Biostatistician 이정화(융합보건 94) 동창이 발표했으며, 박지혜(간호 12) 동창이 사회자로 수고했다. 북미



봄맞이 야외 바비큐 모임을 개최한 일리노이 지회

주 전역에서 동창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창들과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한다. 5월 18일(토) Montrose Park에서 봄맞이 야외 바비큐 모임을 개최했다. 멀리 UIUC에서 달려온 박사과정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어른과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화창한 날씨도 한몫해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김연선(특교 95)

캘리그래피 강의 및 실습

4월 1일(월) Jl. Wolter Monginsidi의 Saint James 전시장 2층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총 16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최해나(동양 91) 동창의 특별한 캘리그래피 강의 및 실습을 가지는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수업을 들은 동창들은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집중하며 강의를 듣고 각자 개성 있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들었다.

캘리그래피 강의를 듣고 작품을 만들어본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조경숙(의학 81)

가족과 함께 숲속의 피크닉

4월 20일(토)에 Longwood Gardens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 모임을 가졌다. 동창 22명과 6명의 가족이 참석하였다. 유정은(독문 94) 동창의 기도로 시작한 모임은 연초록 잎새들로 단장한 숲속의 피크닉 장소에서 김밥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고, 동창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 후 조경숙 동창의 부군인 김영석 교수의 '휴대전화로 좋은 사진 만들기' 특강을 듣고, 가든으로 입장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Longwood Gardens 봄꽃의 향연에 동창들의 밝은 미소와 정다운 대화들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다.

젊은 동창들의 소그룹(94Plus)이 3월 9일(토) 첫 모임을 가졌다. 매월 친목도모와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5월 21일(화)에는 지회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사회는 올해의 이웃돕기 대상을 결정하였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두 번의 야드 세일을 하기로 했다.

정기 모임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동창근황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김임순(가정 49) 동창


김임순 동창

거제도애광원장 김임순 동창이 제29회 한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4월 26일(금) 한신대학교 개교 84주년 기념식장에서 진행되었다. 김임순 동창은 한신대 명예문학박사이며, 애광영아원, 애광학교(특수교육기관)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민들레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애빈) 등을 개설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섰다.

권경주(생명 56) 동창

4월 30일(화) 미국 워싱턴에 거주 중인 권경주 동창이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학술원의 멤버로 선출되었다.

김태련(심리 60)·황혜경(사회 88) 동창


김태련 동창


황혜경 동창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김태련·황혜경 동창이 선정되었다. 김태련 동창은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아이코리아 이사장으로서 심리학 발전과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황혜경 동창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부를 통해 지금의 푸르메재단을 세움으로써 장애인 복지와 권익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시상식은 5월 31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되었다.

이효범(섬예 61) 동창


이효범 동창

(사)녹미미술문화협회 이사장인 이효범 동창은 5월 20일(월)부터 6월 1일(토)까지 파비욘드 갤러리에서 열린 '동행전'에 초대되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자수 작업을 하고 있는 이효범 동창은 많은 동창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구자(서양 65) 동창


최구자 동창

4월 1일(월)부터 14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팔판동 Gallery LP Seoul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15번째 개인전으로 최근 3년간 작업한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자연과 공존'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그려온 최구자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주제와 기법의 변화를 실험하며 작품 표제도 '창작의 기쁨'으로 바꾸었다.

김매자(체육 66) 동창


김매자 동창

전 모교 무용과 교수이자 현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매자 동창이 무용이론서 『세계무용사』와 『한국무용사』를 개정하여 재출간했으며, 5월 28일(화) 창무예술원 포스트극장에서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김광희 (화학 67) 동창


김광희 동창

4월 12일(금) 뉴욕가정상담소(KAFSC) 창립 35주년 기념모금 만찬 행사를 가졌다. 김광희 동창이 설립한 뉴욕가정상담소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법률 지원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용자(사복 68)·권용은(유교 81) 동창


권용자 동창

독립출판 '신촌책방' 대표 권용은 동창이 언니 권용자 동창을 위한 책 『K_YZ 사진집: 보다, 읽다 ,만나다』를 펴냈다. 사진작가 권용자 동창은 현재 알츠하이머 중증 상태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권용은 동창은 언니가 찍은 사진과 글들을 모으고 가족의 글들을 함께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김순이(국문 69) 동창


김순이 동창

3월 20일(수) 김순이 동창이 제주문학관 제3대 명예관장에 위촉되었다. 김순이 동창은 1988년 《문학과 비평》으로 등단한 시인으로 2020년 제20회 제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제9대 제주문화원장을 역임하였다.

김정옥(독문 69) 동창

재단법인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 김정옥 동창이 최근 전북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총 60억 원을 전북대학교에 기부하였으며 2026년까지 20억 원을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최봉순(식영 69) 동창

최봉순 동창이 모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모교는 5월 16일(목) 모교 본관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고 최봉순 동창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최봉순 동창은 모교 식품영양학과 1회 졸업생으로 대구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35년간 재직하였다.

송영숙(문정 70) 동창


송영숙 동창

5월 4일(토) '2024 어린이문화대상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사)어린이문화진흥회에서는 1992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송영숙 동창은 동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시집은 『다섯 살 할머니』.

김숙희(불문 76) 동창


김숙희 동창

5월 28일(화)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2024 아시테지 세계총회'에서 김숙희 동창이 '아시테지 공로상'을 받았다. 김숙희 동창은 1997년 어린이문화예술학교를 창립하고, 한국교육연극학회장, 아시테지 한국본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가톨릭연극협회 부회장, 국제환경예술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수경(가관 76) 동창


서수경 동창

서수경 동창이 뉴저지 Palisades Park 교육위원 선거에서 개표 결과 1위로 당선되어,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안진희(관현 76) 동창


안진희 동창

4월 16일(화)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제51차 정기총회에서 안진희 동창이 총재로 취임하였다. 국제소롭티미스트는 세계적 여성 봉사단체이다.

장영란(섬예 77)·박정례(섬예 79) 동창


장영란 동창

5월 1일(수)부터 8월 4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 중인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전에 장영란 동창이 소장하고 있는 병풍 자수 콜렉션과 현대자수작품을 출품하였다. 또한 이번 기획전에 초청된 박정례 동창의 작품(총 8점)이 함께 전시 중이다.

김명희(법대·법전원 78) 동창

김명희 동창이 제14대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

로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3월 25일(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우선애(영문 79)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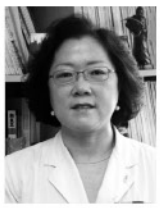
우선애 동창이 계간 《시와 산문》 신인문학상 공모전에서 에세이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6월 22일(토) 열렸다.

김철미(교육 81) 동창


김철미 동창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 동창이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3월 18일(월)부터 2027년 3월 17일까지 3년이다. 김철미 동창은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감사 및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서은숙(의학 83) 동창


서은숙 동창

서은숙 동창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은숙 동창은 1987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 교실에서 출발하여 2024년 2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퇴직하기까지 교육자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박인옥(서양 85) 동창


박인옥 동창

진주의 '페레그리노 갤러리'에서 제22회 개인전을 가졌다. '산책길에 만난 꽃내음과 평화의 기도'라는 주제로 3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페레그리노'란 스페인어로 '순례자'라는 뜻인데, 박인옥 동창은 늘 순례자, 수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작품을 한다고 한다.

석남연(불어교육 85) 동창

4월 17일(수) 석남연 동창이 한국 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석남연 동창은 현재 서울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24대부터 현재까지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부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석남연 동창

신미선(서양 85) 동창


신미선 동창

3월 25일(월)부터 31일(일)까지 경복궁 팔판동, Gallery LP Seoul에서 '비가시성의 기록'을 주제로 스물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신미선 동창은 성경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들을 시각적 작업으로 조형화 해오고 있다.

장미화(피아노 85) 동창

6월 3일(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제5회 앙상블 라로제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앙상블 라로제는 장미화 동창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연주 단체이다. 장미화 동창은 이화여대 및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계원예고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장미화 동창을 필두로 피아니스트 김지은(실용음악대학원 05)·박준영(실용음악대학원 05)·김예나(공연예술대학원 13)·박진아(공연예술대학원 14)·송민정(공연예술대학원 14)·오찬희(공연예술대학원 15)·이슬기(공연예술대학원 15)·전혜민(공연예술대학원 15)·노주은(공연예술대학원 16)·이보미(공연예술대학원 16)·이예슬(공연예술대학원 16)·최경언(공연예술대학원 16)·김예슬(공연예술대학원 17)·김혜림(공연예술대학원 17)·정소연(공연예술대학원 20) 동창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고혜원(정외 86) 동창


고혜원 동창

3월 28일(목) 고혜원 동창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 27일까지다. 고혜원 동창은 1989년 극동문

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직능연으로 옮겨 30년 넘게 근무하며 최근까지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안은미(무용 86) 동창

4월 18일(목) 안무가 안은미 동창이 산드레토 레 레바우덴고 재단(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의 초청으로 베니스 산 자코모에서 프로젝트 전시인 〈안은미의 상호조우체 프로젝트—핑키핑키 굿〉을 공연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은미 컴퍼니가 주관하였다.

이경애(서양 86) 동창


이경애 동창

5월1일(수)부터 13일(월)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제3전시실에서 제24회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Going Home'이란 주제로 작품 22점을 선보였다.

강선희(조소 87) 동창


강선희 동창

5월 17일(금)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문화공헌대상 조각부문 수상을 하였다. 또한 5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코엑스 아트월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했다.

김곡미(생미 87) 동창


김곡미 동창

김곡미 동창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대 신임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최초의 여성 원장으로 임기는 2024년 5월 13일(월)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이다.

김미경(도예 87) 동창


김미경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경 동창의 개인전이 3월 1일(금)부터 17일(일)까지 갤러리 헬렌 에이에서 '마음의 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 시간 반복하여 탐구해 온 다양한 도자 집의 형태를 선보였다.

김희숙(섬예 87) 동창


김희숙 동창

2월 28일(수)에서 3월 3일(일)까지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열린 Craft Seoul 2024에 참가하였다. 김희숙 동창은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색동으로 보여 주고자 하였다.

박선희(장미 88) 동창


박선희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희 동창이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위복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감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미(섬예 88) 동창


이상미 동창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라인 갤러리에서 여성작가 3인 초대전, 5월 2일(목)부터 12일(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9회 아트서울 '5월의 아름다운 선물전'과 5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조형아트서울(Plas Art Show)에 참가하였다.

이수정(조소 88) 동창

4월 24일(수)부터 5월 2일(목)까지 '길'이라는 주제로 1898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영선(섬예 88) 동창


전영선 동창

5월 2일(목)부터 12일(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9회 아트서울 '5월의 아름다운 선물전'에 참여하였다. 전영선 동창은 전통의 모티프들을 이용한 자수작품을 선보였다.

호해란(조소 88)·최은정(대학원 92)·김정연(조소 96)동창

4월 17일(수)부터 28일(일)까지 'Promise'라는 주제로

뮤아트에서 3인전을 개최했다.

김보은(작곡 89) 동창


김보은 동창

김보은 동창이 피아노 연주곡집 『별밤의 어린이 정경』을 4월에 출간하였다.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풍경을 어린이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표현한 작품집이다.

김수지(동양 89) 동창


김수지 동창

3월 11일(월)부터 20일(수)까지 경기도 하남시 소재 갤러리 보나르에서 'Reflected Time'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인경(동양 89) 동창


이인경 동창

5월 6일(월)부터 6월 1일(토)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HEE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손정은(조소 92) 동창


손정은 동창

3월 1일(금)부터 10일(일)까지 '그림자 사원(Shadow Temple)'이라는 주제로 화인페이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혜진(서양 92) 동창


이혜진 동창

5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안산 김홍도 미술관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이혜진 동창은 이서회와 그룹 터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경(의학 92) 동창


정혜경 동창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혜경 동창이 4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 제11차 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구연상을 수상했다.

고동연(장미 93) 동창


고동연 동창

모교 겸임교수 고동연 동창이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를 이끌어갈 신임 예술감독에 선임되었다. 고동연 동창은 예화랑 선임연구원과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 선임연구원, 마이아트뮤지엄 국제부 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예술감독 위촉식은 3월 28일(목) 강원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임복희(행정 93) 동창


임복희 동창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던 임복희 동창이 4월 24일(수)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조 제항에 따라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임기는 제1기 입법평가 기간인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6년 평가심의 종료일까지이다.

최미영(국제사무 93) 동창


최미영 동창

뉴욕에서 해운과 항공기 산업 관련 금융컨설턴트 사업을 하고 있는 최미영 동창은 전 세계 아마존과 아이튠즈 플랫폼에 『Love Letter from Children of Malawi, Africa』라는 그림편지 형식의 책을 출판하였다. 아프리카 말라위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엮어 굿네이버스와 함께 제작한 이 책의 수익금은 말라위의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에 기부된다.

태혜신(무용 93) 동창


태혜신 동창

3월 1일(금) (사)세계선무도총연맹 문화이사로 위촉되었으며, 4월 1일(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

촉됐다. 4월 15일(월)에는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2024년 국립정동극장 전통프로그램 〈세실풍류〉에 초청되어 안무작 〈사르다〉를 공연했으며, 5월 12일(일) '2024 연등회, 선무도 40주년 기념공연'의 일환으로 〈선무도&태혜신카르마프리무용단 콜라보레이션 쇼케이스〉를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중앙무대에서 공연했다.

권혜경(정외 94) 동창


권혜경 동창

『내면혁명으로의 초대-IFS』라는 책을 번역, 출간하고 이 책에 대한 북토크를 진행했다. IFS(내면가족체계) 심리치료의 핵심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각기 다른 인격으로 대하고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김지수(사회 94)·김빛나(정외 00)·박신영(국문 04) 동창

김지수·김빛나·박신영 동창이 제24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마인즈커넥터 대표 김지수 동창은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를 10년째 조선비즈에 연재하고 있으며,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등을 썼다. MBC 라디오2팀 PD 김빛나 동창은 〈손석희의 시선집중〉(2004), 〈배철수의 음악캠프〉(2019) 등을 연출했고, 한국방송대상, 한국PD대상 작품상 등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 박신영 동창은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김지수 동창


김빛나 동창


박신영 동창

신선아(무용 94) 동창


신선아 동창

한국무용가 신선아 동창은 5월 24일(금) 전북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명무들의 춤의향연〉에 참여 '산조춤'을 공연했다. 또한 5월 28일(화)에는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개최된 〈37번째 예인의 길 가무악과 함께하는 명무전〉에 출연했다.

이상영(섬예 94) 동창


이상영 동창

4월 16일(화)에서 30일(화)까지 해방촌 Diamond G에서 'A Closet Narrative' 주제로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5월 23일(목)에서 26일(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조형아트서울(Plas Art Show)에 참가하였다.

이영림(법대·법전원 94) 동창


이영림 동창

대전고검 차장 검사인 이영림 동창이 춘천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영림 동창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등을 거쳐 대검 인권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검사,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하였다.

하진수(행정 95) 동창


하진수 동창

3월 27일(수) 하진수 동창이 JP모간증권 서울지점장으로 취임했다. JP모간증권 서울지점 설립 이후 첫 여성 지점장이다. 하진수 동창은 삼성증권 기업금융부,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부, NH투자증권 ECM2부 등을 거쳐 2019년 ECM 총괄로 JP모간에 합류했다.

이혜원(섬예 96) 동창


이혜원 동창

이혜원 동창이 한국·프랑스 기획 공모전 '전통과 현대 사이'에 선정되어

5월 10일(금)에서 14일(화)까지 프랑스 파리 Galerie Gardette에서 한지와 종이를 소재로 '책의 분석' 작품을 선보였다.

전은배(종음 96) 동창


전은배 동창

전은배 동창이 오르간 편곡집 『Hi! Pipe』 2권 CCM편을 출판하였다. 이번 출판을 기념하여 모교 석·박사 출신의 오르가니스트들로 구성된 연주단 '하이파이퍼 Hi! Piper'를 창단해 지난 4월 〈새 노래로 주를 찬양〉이라는 제목의 창단연주회와 더불어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였다.

조미영(영문 96·국제대학원 99) 동창


조미영 동창

현 글로벌 이커머스 큐텐(Qoo10) 그룹사 북미사업부문 총괄 및 인터파크커머스 북미법인 인터파크글로벌 법인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미영 동창이 5월 Wish+ K-Avenue 북미사업 실장으로 승진하였다.

곽현주(장미 97)·이현아(장미 23) 동창


곽현주 동창


이현아 동창

5월 4일(토) 마포구 소재 'ㅎㄷ 카페'에서 진행된 마포 패션페스티벌에서 곽현주 동창의 브랜드 'Kwak Hyun Joo Collection'이 패션쇼에 참여했다. 또한 이현아 동창도 창업브랜드 'ALCHMIST'로 플리마켓에 참여했다.

정영락(도예 97) 동창


정영락 동창

정영락 동창이 천공(天工)증서를 수여받았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는 정영락 회원이 사명감과 의지로 옹기 제작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였다.

강서경(동양 00) 동창

3월 19일(화)부터 4월 28일(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 '마치 MARCH'를 가졌다. 강서경 동창은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문정(동양 00)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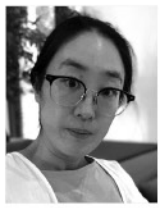

이문정 동창

이문정 동창이 비평서 『진행형의 세계: 한국 동시대 미술을 그리다』를 출간했다

흑요석(우나영·동양 02) 동창

4월 27일(토)부터 5월 5일(일)까지 덕수궁에서 열린 '찬란한 우리의 청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초대' 행사의 '미(美), 피어나다, 공주의 방' 전시에 신작 '화협옹주의 단장'을 선보였다. 또한 흑요석 동창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흑요석 동창은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미를 알리고 있는 작가이다.

양선하(동양 05) 동창


양선하 동창

3월 9일(토)부터 29일(금)까지 '할머니의 이불장'이라는 주제로 파주 소재 파라텍스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수진(의학 05) 동창

이수진 동창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의학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이수진 동창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했으며, 최근에는 사노피에서 면역질환 의학부 헤드(Medical Head of Immunology)로 근무했다.

정유미(동양 05) 동창


정유미 동창

3월 15일(금)부터 4월 27일(토)까지 'WHISTLE'이라는 주제로 아뜰리에 아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지은(장미 06)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은 동창이 5월 24일(금) 서

울예고 71주년, 예원학교 57주년 개교기념식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낸 사람'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지은 동창

안은선(섬예 07) 동창

5월 3일(금)부터 30일(목)까지 서울 송원 아트센터에서 '공예로운 봄' 단체전, 5월 3일(금)부터 15일(수)까지 서울 노들갤러리 1관에서 '위험재앙' 단체전, 5월 9일(목)부터 31일(금)까지 서울 윤현 스테이지02에서 '애도 : 공예이거나 혹은 미술적이거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안은선 동창

박지원(생미 09)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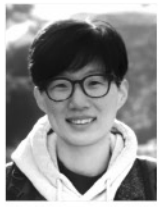
5월 22일(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까르띠에 여성 창업 이니셔티브(Cartier Women's Initiative)' 2024년 어워드에서 '세이브앤코' 대표 박지원 동창이 동아시아 부문 1위로 선정되었다. 1등 수상자에게는 10만 달러(약 1억 3,700만 원)이 수여됐다.

안수현(무용 12) 동창

4월,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안수현 동창이 안무하고 출연한 현대발레 〈여자다움에 대하여〉가 공연되었다. 안수현 동창은 '올해의 주목할 예술가'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예대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홍선희(생명 12) 동창

생화학분자 생물학회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 2024에 초청되어 '황열바이러스 백신의 기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홍선희 동창

이세리(종음 15) 동창

이세리 동창이 4월 15일(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예술행정가와 기획자 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서 국내외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입지를 다졌으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대외 봉사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받았다.


이세리 동창

김보경(조소 19)·김진선(조소 19)·이용현(대학원 22) 동창

5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Vibrant Matter'라는 주제로 갤러리 코사에서 3인전을 개최했다.

최기원(섬예 23) 동창

최기원 동창이 2024년 3월 신세계백화점 봄 캠페인 조형작가로 선정되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전점, 대구점, 부산점에 작품이 설치되었다.


최기원 동창

이예지(장미 24) 동창

이예지 동창이 운영하는 브랜드 '이츠예'가 K패션코드 24FW에 참가하여 3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부스 전시를 진행했다. 또한 3월 29일(금)부터 4월 21일(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에서 '이츠예' 팝업스토어를 진행하였다.


이예지 동창

고(故) 심승자(불문 68) 동창

4월 7일(일) 심승자 동창이 프랑스에서 향년 7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심승자 동창은 1999년부터 프랑스 동양어문화대학(INALCO)에서 부교수로 활동했다. 『프랑스어-한국어 사전』(1992), 『Le coreen tout de suite!』(1995), 『한국어 교본』(1995) 등 다수의 한국어 교재 집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유럽 한국 학회, 프랑스 한인 여성회, 파리 한국 영화제 조직 등 다양한 한인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고 심승자 동창

동창이 펴낸 새 책

숨 쉬는 옹기, 그 멋에 끌리다

김덕신(사회 66)

김덕신 지음, 김윤정 옮김/코드미디어

옹기는 세계에서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저장 용기이다. 김덕신 동창은 1977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옹기를 모으게 되었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김덕신 동창의 다른 저서로는 『물두멍에 담긴 기억들』이 있다.



A Map to the Spring

임덕기(국문 72)

임덕기 지음/Codhill Press

임덕기 동창의 시집 『봄으로 가는 지도』의 영역본이 미국 뉴욕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시인 및 수필가인 임덕기 동창은 시집 『꼰드랍다』, 『봄으로 가는 지도』와 수필집 『기우뚱한 나무』(2015년 세종나눔도서 선정), 『서로 다른 물빛』(원종린수필문학상) 등을 펴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조연경(법대·법전원 75)

조연경 지음/미래북

조연경 동창이 드라마 한 편을 써 내려가듯 우리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글로 엮은 에세이집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를 펴냈다. 이 에세이집은 제26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조연경 동창은 공주영상정보대학 겸임교수와 조선일보 메트로 여성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신문 컬럼니스트, 문화센터 및 기업체 강의, TV 드라마 작가로 활동 중이다.



놀이로 만나는 연극치료

박미리(불문 79)

박미리 지음/학지사

박미리 동창이 '알기쉬운 연극치료' 시리즈 제1권으로 기획한 『놀이로 만나는 연극치료』를 발간하였다. 연극 치료는 연극의 원리를 치료에 도입한 것으로, 예술치료 현장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 동창은 이보다 앞서 출판한 『발달장애와 연극치료』, 『감정모델 연극치료』 등의 저서로 한국연극치료의 성장과 발전에 힘써 왔다.



스토킹의 실체

정현미(법대·법전원 82)·김구슬(법대·법전원 93)

정현미·김구슬 지음/도서출판 나눔사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동창과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김구슬 동창이 공동 연구작업의 결과물인 『스토킹의 실체—한국판 스토킹 범죄 케이스와 처벌례』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관련 판례 1,300여 건을 분석하여 스토킹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현병, 낯선 자아와 떠나는 여행

황수연(중문 89)

앤 데버슨 지음, 황수연 옮김/책책

앤 데버슨은 자신의 아들에게 조현병이 발병한 후 일어난 일들과 가족의 분투, 광란의 고통 등 자신의 체험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기록하였다. 황수연 동창은 조현병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책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황수연 동창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하였으며, 김우영 사진집 『Poetics of Tranquility』, 『Urban Odyssey』를 영역한 바 있다.



내게 말을 거는 여행의 장소

우지연(장미 93)

우지연 지음/행복우물

우지연 동창이 여행 에세이 『내게 말을 거는 여행의 장소』를 출간하였다. 서울대 공간디자인학 박사인 우지연 동창은 이책에서 여러 대륙을 거닐며 마주했던 '공간과 장소'의 이야기를 따스한 문체로 풀어냈다.



세상을 바꾼 영화 속 인권 이야기

임복희(행정 93)

임복희 지음/오디세이북스

우리가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탐색 및 전망하는 책으로, 인권의 발달 역사 순으로 인종 및 성차별을 바꾼 이야기부터 복지, 노동, 환경, 난민 등의 3세대 인권 문제에까지 이르며 절망에 빠지기 쉬운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마다 역사적 배경 및 제도, 법률과 판례의 추이를 추적해 영화를 역동적·심층적으로 읽는다. 또한 예비 또는 재학 중 로스쿨 학생들의 법적 상상력의 광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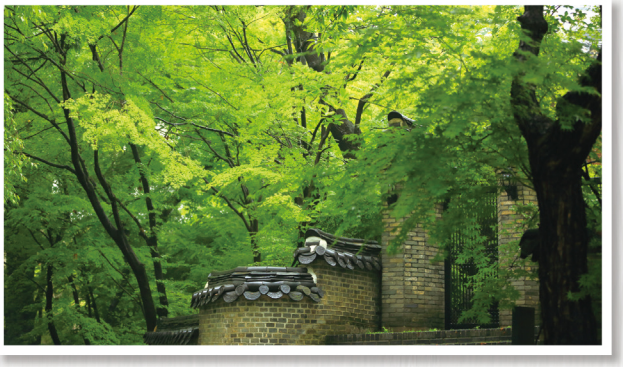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청담동101-7) www.snoble.com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6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6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7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4년 기준 만 60세 미만(1988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